

書耕夜讀의 殿堂

永遠한 知性的의 産室이어라!



學校와 함께해온 變化의 四十年

“ 아무쪼록 뜻깊은 한성여대학보의 창간을 맞아 본교 발전에 새로운 기점이 될 것이며 아울러 본교 건학이념의 발현체로서 지성의 선도자가 되어주길 바라마지않습니다.”

이 글은 1976년 12월 15일 한성대신문의 창간호에 발한 김의행 박사의 추사 마지막 부분이다. 당시 이들은 한성여대학보였다. 위의 추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한성대신문사는 학내의 다양한 사건과 구성원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학내언론으로 시작됐다.

창간 후 초기에는 문예지의 성향이 강했다. 창간호를 살펴보면, 시와 연

어 탐구, 등의 코너 구성과 문예수시인의 창작수집이 눈에 띈다. 이후로도 신문에서는 한동안 시와 소설을 연재하는데 지면의 상당부분을 할애했다. 물론 이와 더불어 학내 보도, 학술연구성 등이 함께 존재했다.

이후 학교가 한성여대에서 한성대로 바뀌면서 1978년 4월에 한성대학보라는 이름으로 제호가 바뀌었다. 이에 따라 학생 수가 많아지면서 격월 4면 발행에서 월간 4면 발행으로 변경하는 시기를 맞아 4월 8일을 발행하는 시분사로 성장했다. 내용 또한 점차적으로 학내 보도에 주력하게 되었고, 대

사회문제와 국내 정세를 다루는 굵직한 이슈가 그 귀추가 주목된다.

한성대학보가 한성대신문으로 전환된 것은 1990년 8월이다. 학보가 많이 혼용되어 있던 신문에서 국문 신문으로 전환되자 제호 역시 국문으로 통일한 것이다. 이후 현재까지 한성대신문이라는 이름으로 발행되고 있다.

이처럼 한성대신문사는 학내 구성원들의 도전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모습을 변화해왔다. 또한 40년이라는 시간동안 한성대학교의 언론으로 활동하면서 한성대학교의 변천을 기록한 사관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했다. 그렇다 면 신문사의 다음 행보는 어떻게 이뤄질 것인가 그 귀추가 주목된다.



金 義 衡 初代學長

四十週年紀念



발행인 이상한
편집인 겸 주간 나온미
편집장 박종민

漢城大新聞社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우편번호 02876)
전화 02-760-4186

祝 四十週年 漢城大新聞社

기자사령
퇴
유동현(영문 2)

이제는 중년이 된 한성대신문

한성대 신문이 40살이 되었다. 인생으로 치자면 불혹의 나이다. 불혹이라면 어떤 것에도 현혹되지 않는 나이라는 뜻이다.

1976년 한성여대학보로 시작해서 40년이라는 세월을 한성의 역사와 함께 하고 있는 한성대신문도,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내며, 적당한 중간자적 역할을 할 수 있음에 하나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딱 적당한 위치에 와 있다고 하겠다.

40년을 축하하는 몇 자 인사말을 적으려하니, 30여 년 전의 학보사기자 시절의 기억들이 하나씩 조각처럼 떠오르며 울컥 그 리움으로 밀려온다. 지금 같은 전 자신문 시스템이 아닌, 한 자 한 자 활자를 조립해서 윤전기에 찍어냈던 만큼, 졸린 눈을 부릅뜨고 오타를 찾아내던 그 열정의 시간들.

민주화를 부르짖던 학우들의 열망을,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 사이에서 미처 다 받아들여주지 못하던 아쉬움과 미안함. 남학우들의 숙원이었던 ROTC의 장단과,

삼선교역의 한성대입구역으로의 개명이 성사되었을 때의 그 뿌듯함과 성취감.. 돌이켜보면 학보사 생활 3년이란 시간이 내가 살아오는 방향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 30년이 지난 지금에 새삼 느끼게 된다.

대학신문은 그 학교의 역사적 기록이다. 또한 시대의 변화에 가장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의 복합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학우들을 위한 학술과 문화의 중심지로서 역할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40년이다. 중년으로 접어든 한성대신문의, 또 다른 도약을 위한 첫 걸음의 시작이다. 그 길을 이끌어 줄 주간교수님과 사랑하는 후배기자들의, 불꽃처럼 피어오를 열정을 위해, 작지만 그러나 가장 커다란 박수를 보낸다.

송재순 퇴임기자회장

‘가끔’ 뿌듯했던 40년

지인의 추천을 받아서 처음 신문사 문턱을 넘은 것이 2010년 12월의 일이다. 당시에 신문사에는 기자가 고작 2명이었다. 내가 새로 와서 셋이 되었지만, 업무량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아무것도 모르고 21학점을 눌러 담아둔 판국에, 취재도 하고 기사도 써야하니 말 그대로 나는 쉴 시간이 없었다. 지금은 편집국장 자리에 앉아서 다른 기자들을 총괄하고 있지만, 아직도 신문사 일은 벅찬 일이다.

‘기사’라는 것을 제대로 하나만 들여보려고 하면, 취재는 물론이고, 사실관계도 죄다 파악해야한다. 취재를 하려고 찾은 취재처에서 업무여건을 당하거나, 응답을 사정하는 상황도 종종 생긴다. 일단 이렇게 다 찾고 검토해서 써놔도 글이 엉망이면, 편집국장과의 한판 실랑이가 기다린다.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서 드넓은 여덟 개 면을 다 채워야 하니, 만성 피로가 등에 딱 붙어서 떨어질 줄 모른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손은 계속 기사를 쓰고,

눈은 모니터를 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써야한다는 사명감이 있겠지만, 다 만들었을 때 느끼는 성취감이 온몸을 지탱한다. 새로운 일정이 시작되면 신문이 제때 못나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산더미지만, 막상 다 만들어두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다. 특히 학교에서 누군가가 내가 만든 이 녀석들을 옆 구리에 끼고 있는 광경을 보았을 때 느끼는 짜릿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한성대신문사는 기자들이 가끔 느끼는 이 생동감에 기대어 40년을 살아왔다. ‘가끔’이라는 것이 고약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서,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려치우고 싶은 생각이 든다. 이런 생각을 40여 년 동안 수많은 선배들이 머릿속에 되뇌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신문사가 참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럼에도 가끔 오는 뿌듯함만큼은 변함없이 여기에 머물렀다가는 기자들을 열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맞은 40주년이 참 놀랍고 고맙다.

박종민 편집국장

무관심과 냉소의 침묵보다는

한성대신문이 창간 40주년이 되었고, 하필 이시기에 나는 신문사 주간인 프레젠테이션을 맡았다. 40년, 세상일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불혹의 시간이다. 그만큼의 판단력과 성숙함을 갖추었는지 돌아본다. 자신이 속한 조직을 축하한다는 것이 그리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기에 대학 신문의 존재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으로 축사에 갈음한다.

수많은 신문사, 공영방송, 상업방송, 종합편성채널 뿐 아니라 인터넷 신문과 방송, 개인 방송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매체들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신문이, 우리 한성대학교의 신문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학 신문도 신문의 범주에 든다는 점을 고려하면 뉴스의 보도, 여론의 계도 등과 같은 신문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해당 대학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도 간과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대학 신문으로서 한성대신문이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대학 구성원들이 우리 한성대신문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물론 대학 본부가 기대하는 것, 교수와 학생, 그리고 교직원들이 기대하는 것이 조금씩 다를 수 있고, 그래서 때로 그러한 다름이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바람과 기대, 그리고 갈등이 한성대학교의 발전과 한성대학교 구성원들의 좋은 삶을 향해 있음은 분명하다.

다양한 세대와 계층, 그리고 지위가 다른 사람들이 모인 대학에서 갈등은 필연적이다. 어쩌면 갈등은 무관심과 냉소적 침묵보다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갈등은 조직이 아직 살아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갖은 감기가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듯 동일한 문제의 반복적 갈등은 우리를 죽일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말자. 한성대신문이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이 표출되고 소통되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이 되고 더 나아가 갈등을 해소하는 건강한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나은미 한성프레스센터장

지면안내 보도 28, 29일 학내 총선거 후보별 핵심공약 선거 전 정책토론회 02/03	기획, 사회 광화문 촛불시위의 현장 대학구조개혁은 과연 합리적인 개혁일까. 04/05	한성문학상 시 당선작, 냉동실 소설 저작, 피그말리온의 서거스 06/07/08	학술 트럼프의 당선, 그리고 '신고립주의' 09	창간 40주년 한성대신문사 40주년, 대학언론의 길을 묻다. 10/11	문화 명상, 당신의 내면을 검색하세요! 12
--	---	---	--	---	--

28, 29일 학내 총 선거 후보별 핵심 공약

32대 총학생회 'OPEN BOOK' 단독 출마

32대 총학생회 선거에는 'OPEN BOOK' 선거운동본부의 김준호(산공 3) 정후보와 정나랑(행정 3) 부후보가 단독 입후보했다. 이들의 공약은 ▲트랙제 안정화 ▲행복기숙사 건립추진 ▲청강여부 수요조사 시스템 ▲소규모인원 강의 절대평가 기준적용 ▲한성인재 교양 시스템 개선 ▲백지공약이다.

김준호 정후보는 출마계기에 대해 "올해 진행된 학교 정책들은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피드백도 없이 진행되었다. 그런 틀을 바꾸고 학교도 안정화시켜보고자 출마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정나랑 부후보는 트랙제 안정화 공약에 대해 "하기 시작 전, 각 단과대 학생회와 의논해 앞으로의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리고 행복기숙사 건립추진에 대해서는 "기숙사 착공과 관련해 주민들과 마찰이 있는데 이것부터 줄이도록 노



▲ 32대 총학생회 후보 'OPEN BOOK' 선거운동본부

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준호 정후보는 "2017년이 되면 학교에 새로 적용될 시스템이 많다. 이번 과도기를 잘 넘겨내면 학교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당선이 되면 각 학생대표들과 의논해 기틀을 정립하고 시스템이 잘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한신 기자 faith7631@naver.com

33대 총대의원회 '가온', '바를 정' 출마

33대 총대의원회 선거에는 경선으로 치러진다. 기호 1번 '가온' 선거운동본부의 김지원(전자정보 3) 정후보와 구근희(경영 2) 부후보가 출마했다. 그리고 기호 2번 '바를 정' 선거운동본부의 고민수(응용시스템 2) 정후보와 이연준(경제 3) 부후보가 입후보했다.

기호 1번 '가온'의 주요 공약은 ▲감사내용 확대 및 구체화 ▲감사과정·내용 공지 ▲대의원 자격 및 자긍심 확립 ▲단대별 우수 대의원 선발이다.

김지원 정후보는 출마 계기에 대해서 "총대 감사국장을 했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우리 학교 학생들이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한다. 감사 부분 중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깨끗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감사에 관련해서는 "정기 감사 외에 수시 감사를 진행하려 한다.



▲ 33대 총대의원회 후보 기호 1번 '가온' 선거운동본부

수시 감사는 불시에 시행할 것이며, 정기 감사 시 수시 감사 때의 결과를 반영할 생각이다. 감사학교는 새 학기가 시작하고 대의원 총회가 열리기 전쯤으로 계획하고 있다. 감사학교에서는 대의원들과 감사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 우리 학교에서 시행되는 감사에 대한 지식과 진행 사항을 알려드리려 한다"고 밝혔다.



▲ 33대 총대의원회 후보 기호 2번 '바를 정' 선거운동본부

대의원에 대해서는 "단대별로 하나의 학과를 뽑아서 우수 대의원을 선발해 자금관련 지원을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기호 2번 '바를 정'의 주요 공약은 ▲감사 투명성 강화 ▲학칙의 중요성 강조·개정 ▲대의원 혜택 증진 ▲대의원 단합 ▲대의원들에게 대의원 총회의 중요성 교육이다. 출마계기에 대해 "IT응용시스템

공학과 학생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감사를 진행하다 보니 허점이 많이 보였다. 성격상 깔끔하지 못한 것을 두고 볼 수 없기에 그런 부분을 정정하고 싶어서 출마하게 됐다"고 말했다.

감사에 대해서는 "감사국에서 진행되었던 모든 예산과 집행 내역을 각 과별, 단위별로 커뮤니티에 공개하겠다. 또한 총대위원회실 방문 시 이를 모든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 각 학과별, 단대별 관계자들에게 학칙을 강조하고, 개정할 생각이다. 감사의 절차에 대한 것이 아닌 사업 추진의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대의원에게 부여되었던 교내봉사 100시간을 비교과 포인트로 전환하고, 소정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박원경 기자

parkwk94@gmail.com

34대 학생복지위원회 'WITH', '심표' 출마

34대 학생복지위원회 선거는 경선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는 기호 1번 'WITH' 선거운동본부의 오예성(컴공 3) 정후보와 김남정(지정 2) 부후보가 입후보했다. 그리고 기호 2번 '심표' 선거운동본부에는 송진기(기계 2) 정후보와 박가은(패디 3) 부후보가 입후보했다.

기호 1번 'WITH'의 공약에는 ▲학생 복지 사업 확대 및 개편 ▲간식 야식 사업 확대 ▲다양한 문화생활 확충 ▲학생복지위원회 페이지 개설 ▲상상관 음료수 자판기 ▲시험기간 숙박 사업 ▲셔틀버스 노선도, 시간표를 한성IN에 연동이 있다.

기호 1번 오예성 정후보는 학생



▲ 34대 학생복지위원회 후보 기호 1번 'WITH' 선거운동본부

복지 사업 확대 및 개편 공약에 대해 "각 건물 당 하나씩의 소리함을 만들어, 익명으로 학생들이 필요한 물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험기간 숙박사업 공약은 학



▲ 34대 학생복지위원회 후보 기호 2번 '심표' 선거운동본부

교 주변 고시원들과 협의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하며 "가격은 만 원에서 만 오천 원 대로 설정할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

기호 2번 '심표'의 공약에는 ▲상상관 자판기 설치 ▲안전확보 ▲여

자화장실 여성용품 자판기 설치 ▲한성 잔디밭 영화제가 있고 추진 예정 사업에는 ▲새로운 사업 ▲대여사업 확충 ▲프로모션 사업 ▲과거 사업 복구가 있다.

기호 2번 송진기 정후보는 새로운 사업에 대해 "플라로이드 사진 촬영 이벤트, 정수기 필터 교체 및 관리, 여성물품 이벤트를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한성 잔디밭 영화제 공약을 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학교에는 문화 행사가 적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며 "한강 이블 영화제에서 모티브를 따와, 우리학교에서도 영화제를 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한신 기자

faith7631@naver.com

30대 졸업준비위원회 '루리' 단독 출마

30대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업위) 선거에 '루리' 선거운동본부의 백석환(경영 3) 정후보와 유지윤(행정 3) 부후보가 단독 입후보했다. 주요 공약은 ▲취업지원팀과의 연계사업 ▲일반 학우들에게 다가가기 ▲졸업요건 가이드북 제작 ▲졸업위 홈페이지 새 단장이다.

백석환 정후보는 학우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출마했다고 밝혔다. 졸업예정자가 아닌 학생들에게도 필요한 졸업준위가 되려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일반 학우들은 항상 졸업요건을 염두에 두어야 하기에 그에 맞춘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졸업요건 가이드북을 제작해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30대 졸업준비위원회 후보 '루리' 선거운동본부

취업지원팀과의 연계사업에 대해 "논의 중인 사항은 각 학과별 취업률 공개, 졸업안 선배들의 인터뷰 등"이라고 전했다.

박원경 기자 parkwk94@gmail.com

17대 인문대학 학생회 'Lissom' 단독 출마

17대 인문대학 선거에 'Lissom' 선거운동본부의 박민권(국문 3) 정후보와 권민정(영문 2) 부후보가 단독 입후보했다. 주요 공약은 ▲상주 물품 확충 ▲간식 사업 실시 ▲학우들과의 소통 방안 확대 ▲인대 MT 실시 ▲트랙제 기반 확립이다.

박민권 정후보는 출마 계기를 "트랙제와 관련하여 대학 본부가 학생들에게 수업 커리큘럼 이외의 학생회 운영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학생들을 이끌고 새로운 학생회를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소통방안에 대해 "학생들과의 소통 방안 확대하기 위해 SNS를 최대한 활용할 생각이고, SNS를 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 자보를 붙이고, 권의함을 설치할 예정이다. 인문대와 회화과·무용과의 연합 MT를 실시할 것이



▲ 17대 인문대학 학생회 후보 'Lissom' 선거운동본부

다. 회화과와 무용과가 통합되는 과정에 있어서 원활한 적응을 돕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트랙제에 대해서는 "트랙제 기반을 내년 1학기 개강 전까지 확립하려 한다. 이는 수업 커리큘럼에 관여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각 학과·인문대 활동, 학생회를 구성하는 체계 등을 확정하겠다는 의미이다"라고 전했다.

박원경 기자 parkwk94@gmail.com

20대 예술대학 학생회 '맺음' 단독 출마

20대 예술대학 선거에 '맺음' 선거운동본부의 강필준(예니 2) 정후보와 이윤희(인테리어 2) 부후보가 단독 입후보했다. 주요 공약은 ▲야간 냉난방 가동 체계화 ▲급격한 구조조정에 대한 과안정화 ▲예술대 학생회 페이지 콘텐츠 다양화 ▲예술대 특성에 맞는 복지와 간식 및 이벤트이다.

강필준 정후보는 "공약 중 저와 관련 있는 것이 많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해주고 싶었다"며 출마 계기를 말했다.

야간 냉난방 가동 체계화에 대해서는 "일반 학생이 야간 냉난방을 신청할 경우 대개 불허하지만, 학생회장들이 직접 말하면 받아들여진다. 누가하면 되고, 누가하면 안 되는 상황이다. 누구나 냉난방을 쉽게 가동할 수 있도록 할 것



▲ 20대 예술대학 학생회 후보 '맺음' 선거운동본부

이다"라고 말했다. 구조조정에 대해 "여러 학과가 통합되다보니 커리큘럼이 불안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급격한 구조조정에 대한 학과 안정화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원경 기자 parkwk94@gmail.com

19대 공과대학 학생회 '한울' 단독 출마

19대 공과대학 학생회에 '한울' 선거운동본부의 서유경(산공 3) 정후보와 최유진(기계 2) 부후보가 단독 입후보했다. 이번 공약에는 ▲소통하는 공대 ▲트랙제 안정화 ▲공학관 1층 오래된 충전기 교체 ▲시험기간 야식배부 ▲(구)공학관 그라피에 공간활용 ▲대여사업 확대 및 개선 ▲공대체전이 있다.

출마계기에 대해 서유경 정후보는 "대의원 시절 학생들의 의견을 학교 측에 전달하려고 노력했었는데 잘 안됐다. 그래서 학생들의 의견을 학교 측에 강하게 전달하고자 출마했다"고 말했다.

또한 (구)공학관 그라피에 공간활용 공약에 대해 서 후보는 "예전에 (구)공학관 그라피에에 사용하던 에어컨과 난방기구 등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 장소를 활용하려고 내걸었다. 그것을 어떤 용도로 활용할지는



▲ 19대 공과대학 학생회 후보 '한울' 선거운동본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것이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각오에 대해서는 "공대 학생회장이 된다면 학교 측의 일방적 통보에 대한 진상을 잘 파악한 다음 학생들에게 잘 전달할 것이다. 또 소통도 많이 할 것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한신 기자 faith7631@naver.com

23일 학생대표 간담회 열려

전체 학생 간담회는 학생 반응에 따라 개최여부 결정

지난 23일, 상상관 12층 대회의실에서 오전 11시부터 2시간 동안 학생대표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는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의 각 대표들이 대자보와 SNS를 통해 학생들에게 받은 질문을 이 상한 총장, 조세홍 교무처장, 이형용 학생처장과 배석한 교직원들에게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차 간담회 실시는 지난 5월 18일 열렸던 학사구조개편안 간담회에서 학생들과의 약속사항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트랙제도 외에도 학생자치·복지 및 스마트출결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총학생회가 공개한 회의록에 따르면, 트랙제도에 대한 대학 측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트랙제가 실시되더라도 16학번 재학생까지는 현재 학과 커리큘럼이 유지된다. 재학생은 본인이 희망하면 기존 학과명이 기재된 졸업장을 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재학생이 재수강을 해야 하는 경우나 군휴학 등으로 전공과목을 수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 과목 대신 트랙제의 대체 과목을 수강해야 한다.

또한 한 트랙 당 39학점 기준으로 4-5명의 전임교원을 배정할 예정이며, 전체적으로 전임교원 비율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 대학 측의 설명이다. 수강신청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1-2개의 트랙을 선택할 수 있고, 주트랙 선택 인원에게 수강 우선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수강신청의 풀림현상에 대해서도, 풀림현



▲ 11월 23일에 상상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학생대표 간담회 출처 학생지원팀

상에 대한 수강제한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없어지는 과는 경쟁력 제고를 통해 새로운 커리큘럼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학생자치 관련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각 단과대별, 학과별 학생회에서 모여 학과별 상황에 따라 대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편, 손승민 총학생회장은 “전체 학생 대상 간담회는 학생들의 학생대표 간담회 내용에 대한 반응을 보고 개최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간담회 내용은 총학생회 페이스북 페이지(<https://www.facebook.com/hansung31st>)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식 기자 meanchic@naver.com

#우리학교 #타임라인

(주)팔고당, 상상관에 12월 초 입점 예정

11월 3일로 예정되었던 (주)팔고당의 ‘뽕뽕한 연구소’와 ‘밀가옥’의 상상관 입점이 12월 초로 미뤄졌다. 가격과 메뉴는 여전히 학교와 업체 간 협의 중에 있으며, 공사는 11월 중순 착공해 ‘밀가옥’이 들어오는 12월 먼저 기초 공사를 진행 중이다. 입점 예정인 12월 초에 맞춰 2층 ‘뽕뽕한 연구소’까지 공사가 완료된다.

(주)팔고당은 “입점 및 운영은 12월 초에 시작하며 이번 학기는 시범으로 운영된다. 내년 3월 초에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가격과 메뉴는 12월 초 운영 전까지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인테리어를 (주)팔고당에서 주관하며, 시공에 대한 의사결정권 역시 업체가 가지고 있다. 구자은 총무인사팀 과장은 “학교는 업체에 11월부터 입점을 요구하지만, 업체는 설계도면을 계속해서 수정하고 있다. 소방법이나 외부업체를 규정짓는 법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문지수 기자 answltn15@hansung.ac.kr

성북청소년진로직업체험행사 열려

입학홍보처는 오는 12월 2일에 교내 곳곳에서 ‘미래창창 성북청소년진로직업체험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행사는 성북문화재단에서 주관하며, 성북구 18개 중학교 학생 2,00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다. 성북구 내 대학들이 연계하여 개최되는 이 행사는 청소년들의 진로교육을 지원하는 우리대학의 지역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이다. 행사 세부내용으로는 진로상담 및 전공탐색 부스, 진로콘서트 강연 등이 열릴 예정이다.

안상욱(압학관리팀) 팀장은 “행사 당일 교내 시설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성북구 청소년들에게 우리대학을 알리는 행사인 만큼 학생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김민식 기자 meanchic@naver.com

포트폴리오 경진대회 열려

지난 11월 17, 18일 미래관 회의실에서 포트폴리오 경진대회가 열렸다. 포트폴리오 경진대회는 교직원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최했다.

최우수상은 지희진(경영 3), 그리고 우수상에는 이미영(국문 2), 김한솔(경영 3), 우미희(영문 4)가 수상했다. 장려상에는 민지윤(경영 3)과 박민지(무용 3), 엄윤호(영문 3)가 수상했다.

이번 대회의 목적은 학생들이 스스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여 매학기 지도교수와 면담시 활용함으로써 자율적인 학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한신 기자 faith7631@naver.com

제 10회 한성인 프레젠테이션 대회 열려

지난 24일 사고와 표현 교육과정의 주최 하에 제 10회 한성인 프레젠테이션 대회 본선이 미래관 DLC에서 열렸다. 11월 17일에 열린 예선을 거쳐 8팀(개인 2팀, 단체 6팀)이 본선에 올랐다. 최우수상 1명 100만원, 우수상 2명 각 20만원, 장려상 5명·인기상 1명 각 5만 원의 상금을 수여받았다. 대회 담당자인 사고와 표현 과정 주임교수 나은미 교수는 “이 대회로 참신한 표현 전략을 개발하고, 논리적·구조적 사고력을 키우며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프레젠테이션 문서 작성·발표 능력을 제고하기 위함이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청중으로서 대회에 참여한 프리모드(경영 2) 학생은 “참여자들 발표 수준이 높다. 자신들이 아는 것을 잘 설명한 것 같다. 내년에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이지원(국문 4)학생은 “연속으로 두 번 우수상을 받아 최우수상에 도전하고 싶어 3년 동안이나 참여했다. 실수를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심사위원들이 4학년이라고 너그럽게 평가해준 수상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수상 소감을 말했다.

박원경 기자 parkwk94@gmail.com

동아리 ‘VISION’ ‘한성인의 다락방’ 개시

지난 10월 21일, 본교 벤처창업동아리 ‘VISION’이 교내 중고 물품 기부 사이트인 ‘한성인의 다락방’을 시작했다. ‘한성인의 다락방’은 노광현(IT응용시스템공학과) 교수와 ‘VISION’ 구성원들이 학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부 사업이다.

‘한성인의 다락방’은 학교 구성원들로부터 물품을 기부 받아 웹페이지를 통해 판매한다. 기부 받은 물품은 서적, 전자기기, 기타의 품목들로 분류되고 지나치게 파손되거나 훼손된 물품은 선별에서 제외된다. 판매 가능한 물품은 웹사이트에 업로드 된다. 물품을 구매할 사람은 본교 인성관 406호(VISION 동아리실)에 방문해서 구매동의서 작성 후 물품을 수령할 수 있다. 물품은 정가의 최대 80%까지 할인되어 판매되고 수익금은 최소운영비를 제외하고 본교에 기부된다. 기부자와 구매자는 본교 발전기금 후원자에 등록되며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된다. 또한 기부 과정과 금액은 일반 학생들에게 공개된다.

‘한성인의 다락방’ 대표를 맡고 있는 송영학(경영 1) 학생은 사업을 시작하게 된 취지에 대해 “기부를 통해 학생과 교수, 학생과 학교 운영진 간 소통과 교류를 장려하고 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며 “지금은 좀 미약하지만 장기적으로 키워볼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이한신 기자 faith7631@naver.com

학내총선거 후보자 정책토론회 개최

지난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학내총선거 후보자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이 토론회에는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졸업준비위원회, 학생복지위원회와 각 단과대학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들이 참여했다. 토론회는 각 후보들의 공약 발표 이후, 프레젠테이션 질의응답과 일반학생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24일 정책토론회에는 공과대학 ‘한울’ 선본과 인문대학 ‘Lissom’ 선본, 예술대학 ‘햇음’ 선본과 졸업준비위원회 ‘루리’ 선본이 참여했다. 가장 처음에 공약발표를 했던 ‘한울’ 선본은 ‘소통’과 ‘화합’을 우선과제로 삼았다. 특히 공약 중 ‘공대체전’은 문·이과 통합모집으로 들어온 정시 신입생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한 ‘특성화’의 수혜자인 공과대학이 관련 문제로 다른 대학과 같이 행동해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함께해야한

다고 생각하지만, 학서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대답했다.

다음으로 이어진 ‘Lissom’ 선본은 크리에이티브 인문대학으로 편입되는 무용과·회화과와의 화합과 학생들과의 소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또한 트랙제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시 총학생회 및 다른 당선자들과 연대행동에 나설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햇음’ 선본은 야간 냉난방을 개선하고 페이스북 페이지의 콘텐츠 확장을 주요 공약을 내세웠다. 이에 손성민 총학생회장은 “야간 냉난방은 개별난방이 안 되는 설계의 문제”라며 “개·보수의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이라고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루리’ 선본은 일반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위원회가 될 것을 밝혔다. 또한 ‘졸업요건 안내책자’ 공약에 대해서는 “내년 5-6월쯤으로 예상된다”고 대답했다.

25일 정책토론회에는 총학생회 ‘OPEN BOOK’ 선본과 총대의원회 ‘기운’ 선본과 ‘바를 정’, 학생복지위원회(이하 학복위) ‘WITH’ 선본과 ‘쉽표’ 선본이 참여했다. 처음 순서로 공약발표를 했던 학복위 선본들은, 기존 5-6월로 전망되었던 상상관 자판기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는 것에 의견의 일치를 보였다. ‘WITH’ 선본은 기존 학복위의 사업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숙박시설 제공과 한성대IN에 서버버스 시간표를 연동하는 공약은 각각 고시원 원장과 대학본부에게 이미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쉽표’ 선본은 과거의 사업을 복구하고 새로운 공약을 선보이며, “인근 대학들과 예전의 ‘서울북부대학교 학생복지위원회 연합’을 재창설하겠다”는 포부를 보였다.

‘OPEN BOOK’ 선본들은 공약인 ‘트랙제 안정화’에 대해 “교무회의에 직접 학생대표가 참여하여 트랙

제를 안정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동소문동에 진행 중인 ‘행복기숙사’ 공약에 대해서는 “지역대학 대표로서 꾸준히 설득과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총대의원회 선본들은 ‘투명 한 감사’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였다. 그러나 ‘가운’ 선본은 감사국장인 정후보의 경력을 제시하며 대대적인 ‘감사강화’를 공약으로 삼은 한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감사학교’를 운영하여 일반학우를 위한 공약도 제시했다. 반면 ‘바를 정’ 선본은 대의원 처우 개선과 총대의회 참여율 상승을 공약으로 삼았다. 이에 대해 선본은 “참여율을 높여 이를 명분으로 삼아 대의원의 처우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총대의원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주형 기자

ljh@hansung.ac.kr

우리학교 기숙사 청사진

테니스장에 기숙사 신축 예정, 현재 기숙사의 상황은?

이상한 총장은 지난 3월 23일 취임 인터뷰 당시 기숙사를 증축할 계획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현재 우리학교의 기숙사 시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얼마나 증축될 예정인가.

앞으로 기숙사 신축 예정은?

신축 기숙사의 위치는 공학관 앞 테니스장으로 선정되었다. 공사는 2017년 7월에 착공해 2018년 8월 준공 예정이다. 학생지원팀은 “기숙사는 지하 2층에 지상 7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며 연면적 약 6900㎡, 수용 인원 326명(2인 1실)으로 계획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기숙사는 세미나실과 라켓볼장 등 기존의 기숙사에 없던 편의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학내 기숙사의 현재 상황

현재 우리학교 기숙사에 수용할 수 있는 총 인원은 434명이다. 이는 전체 학생대비 수용률 6.9%의 수치이다. 테니스장에 신축 예정인 기숙사의 수용인원을 포함하면 총 770명이며, 12.2%로 약 5% 증가한다. 현재 우리학교에서 소유하고 있는

10개의 기숙사는 다음 <표>와 같다. 이 중 7개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생활하는 기숙사이고, 현대빌라는 평생교육원에서 사용 중이다. 내국인 학생이 생활할 수 있는 기숙사는 남학생 기숙사인 삼선학사 A동(57명 수용), 여학생 기숙사인 우촌학사(100명 수용) 2개이다. 한편 김병일 학생지원팀 직원은 “6.9%라는 수치는 글로벌 빌리지 기숙사 신축 등으로 전년도 기숙사 수용률 3.3%보다 향상된 결과이며, 인근지역 타 대학 대비(광운대 1.7%, 서경대 5.5%) 높은 수용률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수도권 대학 기숙사 평균 수용률이 15%인 것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현재 운영시스템 현황은

지난 8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공 및 사립대학 기숙사 이용약관의 불공정한 조항들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중도퇴사 시 위약금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30일 이후 퇴사 하거나 강제퇴사하는 경우에

는 비용을 일체 환불하지 않는 조항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밝혔다.

우리학교는 한 달 이내에 퇴사할 시, 전액을 환불하고 있다. 한 달 이후라도 정당한 이유일 경우 잔여일 수에 맞춰 환불이 가능하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준에 부합하다.

하지만 강제 퇴사의 경우는 다르

다. 현재 우리학교는 기숙사 운영 기간 중 재입사에 반영하는 상·벌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벌점이 초과되거나 학교 징계처분 등으로 강제 퇴사할 경우 환불이 불가하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거래로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다.

문지수 기자 answltn15@hansung.ac.kr

<표>학내기숙사 현황(11월 24일 기준 학생지원팀이 제공한 자료에 근거함)

분류	기숙사	위치	수용 인원
외국인 유학생 (총217명)	푸르지오 APT 기숙사	삼선동 2가 425번지	40명
	삼선학사 C동	삼선동2가 302-3번지	6명
	삼선학사 D동	삼선동3가 104-7	8명
	삼선학사 E동	삼선동3가 104-13번지	9명
	삼선학사F동	삼선동2가 382번지	15명
	글로벌 빌리지	삼선동5가 299	71명
내국인	우촌학사	삼선동3가 27-10번지	100명
	삼선학사 A동	삼선동 1가 285-3외 2필지	57명
	현대빌라	삼선동5가 94-2번지	62명
평생교육원	현대빌라	삼선동5가 94-2번지	62명



저 너머에 대통령이 있다

지난 11월 12일, 민중총궐기대회를 비롯한 박근혜 하야 촉구 촛불집회가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되었다. 이 집회에는 집회측 추산 100만여 명, 경찰 추산 26만여 명이 참여했다. 이는 그보다 일주일 앞선 11월 5일 박근혜 하야 촛불집회(주최측 추산 20만여 명, 경찰 추산 4만 5천여 명)를 월등히 뛰어넘는 숫자이다. 이 날 있었던 집회는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었다. 이날 지방에서 상경하는 인파들로 서울행 KTX와 버스표가 매진되는 등,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참여도 활발했다.

거리로 나간 '시민들'

이번 집회는 대학 차원에서 직접 참여를 독려하거나 관련 행사를 기획하는 등, 청년층의 참여가 높았다. 우리대학 역시 배성민(경영 3)부총학생회장의 주도로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 행사는 해화에서 열리는 청년총궐기대회에 참여한 뒤, 청년총궐기대회의 시위자들과 함께 행진하며 본 집회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본 집회에 앞서 해화에서는 오후 2시 30

분부터 청년총궐기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집회는 전국각지의 대학생 5000여 명을 동원하는 것에 성공하며 서울광장까지 행진함으로써 본 집회에 합류했다. 또한 오후 4시부터 본 집회가 시작되면서 청소년들의 참여 역시 도드라졌다. 광화문 인근 도로에서



▲ 거리를 행진하는 고등학생 시위대

는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속속들이 모여들어 "우리가 주인이다"를 외치며 행진했다. 인터뷰에 응한 칠보고등학교의 장진완 학생은 "공부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현 사회를 고

치고 싶어서 나왔다"고 참여계기를 밝혔다.

또 이 집회에는 직업을 막론한 다양한 시민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집회현장에서 버스킹 공연을 한 음악인 Agi(김기영)는 "박근혜 정권이 출범한 이후 예술에 대한 제약이 강해졌다"고 말하면서, "이번 일을 보고 나서지 않을 수가 없어서 나왔다"고 참가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는 "예술이 침묵하는 것은 사회 전체가 침묵하는 것"이라고 본인의 생각을 말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조정숙 수녀는 "종교인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나왔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 집회에는 청년들부터 종교인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사람들이 참여했다.

정치인, 축제, 그리고 행진

이날 집회는 크게 광화문·청계광장과 경복궁사거리로 나뉘어서 진행했다. 광장에서는 정치인, 연예인, 예술인들이 참여한 공연이나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었고, 경복궁사거리에서는 민중연합당이 주도한 청와대 행진이 진행되었다.

광장에서 있었던 행사에서는 정치인들의

행보가 도드라졌다. 이날 인터뷰에 응한 정청래 전 국회의원은 현 시국에 대해 "박근혜가 망친 나라를 국민들이 나서서 구해야 한다"고 말하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 2항의 정신을 국민들이 실



▲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을 든 시민들

천할 때"라고 현 시국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하야 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입을 열면서, "하루 빨리 박근혜가 하야하는 것만이 마지막 남은 본인의 애국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원순 서울시장도 본 집회에 앞서서 개최된 토크쇼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국민이 이긴다"고 외쳤다. 또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집회 중 개최된 국민의당 당원보고대회의 연단에 오르기도 했다. 한편 청계광장에서 벌어졌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규탄대회에서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추미애 대표, 우상호 원내대표 등 당내 주요인사들이 참여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역시 이날 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와 함께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도 집회에 참여했다.

문화행사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광화문광장에서는 본집회가 시작하기 전, 김제동씨가 진행하는 토크콘서트가 열려 다양한 시민들의 자유 발언들이 있었다. 또한 본집회가 시작된 이후에는 도올 김용옥씨도 나와 직접 발언을 하기도 했으며, 밴드 크라이닝넷과 같은 연예인들이 공연을 했다.



▲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개최된 정의당 전당대회

이외에도 집회 곳곳에서는 버스킹 공연과 예술 전시, 시위 관련 물품 판매 등이 벌어졌다. 이 덕분에 광장은 축제처럼 활발한 분위기를 유지했다.

한편 민중연합당이 주도한 행진에는 4.16연대 등과 같은 단체들이 참여했다. 이날

행진은 경찰이 차벽을 세워놓은 경복궁사거리에서 제지되어 집회가 끝날 때까지 경찰과 대치했다. 경복궁사거리는 청와대와 1km 남짓 떨어진 곳이다. 행진에 참여한 시위자들은 제각기 '박근혜 퇴진', '하야하라'와 같은 피켓과 촛불을 들고 일제히 합성을 질렀다. 또한 행진을 이끄는 민중연합당과 4·16연대의 연설들도 이어졌다.

대치가 계속되던 오후 6시 무렵에는 500명 규모의 일부 시위대가 경찰 차벽을 뚫고 청와대 근처까지 행진했다. 이 행진은 청와대까지 불과 200m를 남겨둔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이어졌다. 경찰의 최후저지선 바로 앞까지 도달한 시위대는 대체로 자중하는 분위기였으나, 일부 시위자들이 버스 위의 경찰들에게 욕설을 날리며 긴장국면이 조성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긴장국면은 다른 시위자의 제지로 금방 해소되었다. 시위대는 이어 "청와대가 바로 저 차벽 너머라서 여기서 외치면 다 들린다"고 말하며, 1시간 정도 "박근혜 퇴진"을 외치다가 다시 경복궁사거리의 시위자들과 합류했다.



▲ 경찰의 최후저지선 앞에서 시위하는 시위자들

이날 시위는 공식적으로 그날 자정을 기해 해산되었고, 시위 외중에 몇몇 마찰이 발생하기는 했지만 큰 폭력사태로 번지지 않고 평화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시위가 끝나고 남은 거리

시위가 해산된 이후,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치웠다. 이번 시위에 대한 언론의 전체적인 평가는 '평화시위'였다. 서울시가 대중교통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이날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의 숫자는 최대 132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회로서는 6월 민주항쟁 이후 최대 규모이다. 일주일 뒤에 이어진 촛불집회도 전국각지에서 100만 명의 인파를 동원하는데 성공했다.

대학사회의 반응도 이에 맞춰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는 학생집회를 통해 박근혜 하야를 위한 집단 활동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서울대학교와 숙명여대는 한남한시에 강의에 참여하지 않는 '동맹휴학'을 결의했다. 12일의 수많은 촛불을 차벽 너머에서 지켜보고 있었을 대통령. 그녀가 어떤 선택을 할지 그 행방이 주목된다.

이주형 기자 ljh@hansung.ac.kr

민중의 목소리, 시위의 역사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하여 다양한 시위가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시위들에는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하며, 하나의 문화 축제처럼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시위의 문화는 어떻게 정착된 것일까?

근대 이전에도 상소의 형태로 일종의 시위가 있었지만, 대중적이며 체계적인 시위의 시초는 1919년에 일어난 3·1 운동이었다. 3·1 운동은 비폭력 만세운동이었다. 사람들은 서울을 8개구로 나누어 행진하면서 사람들에게 독립선언서를 나눠주고, 조선의 독립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또한 시위에 참여한 여학생은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내고, 태극기에 대한독립을 써 보이는 퍼포먼스도 시도했다.

해방 이후 이러한 시위 문화를 계승한 것은 4·19혁명이었다. 이승만 정권의 독재정치와 사사오입 개헌사건 등에 저항하여 일어난 이 시위는 당시에 유명무실해졌던 민주주의를 부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시위자들은 정부의 과도한 진압으로 인해 수차례 물리적 마찰을 빚었다. 폭압적인 진압 앞에서 시위대도 폭력을 선택하면서 185명의 사상자와 1천 5백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시위 문화는 민주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평화적인 방법들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1인 시위', '3보 1배 시위'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시위가 대표적이다. 그 중에서 '촛불시위'가 현재 가장 대중적으로 이용되는 시위의 유형이다. 촛불시위는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진

여중생 효순이·미선이의 비극적 사고의 추모를 계기로, 평화시위의 한 방법으로써 확산되었다.

최근에는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더 쉽게 자신의 시위 목적을 알릴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시위의 파괴력을 높이고자 퍼포먼스를 갖춘 시위도 등장하고 있다. 최근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하여 진행 중인 '하야체조', '시국선언'과 같은 퍼포먼스 시위가 그 예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각 시대의 상황에 따라 시위문화에 큰 변화가 있어왔다. 현재 광화문에서 진행되는 시위들의 방식은 이러한 역사적 흐름에 따른 것이다. 문화의 장처럼 여겨지는 최근의 시위장은 시위역사의 하나의 변형점이다.

유은강 기자 dbdmsrkd73@naver.com



▲ 4·19혁명 당시 경무대로 향하는 시위대

대학구조개혁, 과연 합리적인 개혁일까

2016년 대학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단연 '대학구조개혁'이었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이라는 제도를 통해 대학의 정원감축을 선제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세웠다. 이에 15년 8월 31일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따른 등급별 정원감축 및 재정지원제한을 권고했다.

대학구조개혁의 과정

2018년부터는 대학 입학정원과 고교졸업자 수의 역전현상이 생긴다. 대학 입학 정원 감축이 불가피해지는 것이다. 이에 교육부는 향후 고등교육 수급 전망에 따른 선제적 대응, 대학교육 질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 요구 증가, 고등교육 생태계 황폐화, 새로운 고등교육 수요 확대의 한계를 들어 대학구조개혁의 배경에 대해 설명한다. 궁극적으로 교육부가 나서서 대학구조개혁을 통한 입학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교육부는 다음과 같은 계획을 제시해 개혁을 실시했다. 주기별 평가를 통해 정원 감축을 진행했다. 2023년까지 16만 명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해, 이를 3주기로 나누어 정원을 감축하는 계획을 세웠다. 1주기인 지난 14년부터 올해까지 4만 명을 감축하고 2주기(17년~19년)에는 5만 명, 3주기(20년~22년)에는 7만 명을 감축할 예정이다. 재정 지원사업과 구조개혁을 연계해, 대학에 재정

적인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또한 새로운 평가 체제를 도입시켰다.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절대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했다. 나뉜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는 방식이 사용되었다.

대학 구조개혁의 문제점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구조개혁이 지역과 규모에 따른 대학의 양극화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대학 구조개혁이 단순한 수치의 의존해, 오히려 이러한 문제를 심화시킨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등급별 대학을 나누어 정원감축을 실시하는 것은 대학 간 소모적 경쟁을 부추기고, 지방대 죽이기 정책일 뿐이라는 지적이 있다. 대학교육연구소 이수연 연구원은 "교육부는 현재 어떠한 원칙도 없이 대학구조개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정원감축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정원감축을 진행하는 것은 반대한다. 등록금이 운영을 의존하는 대학은 인원감축으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이 생기고 교육의 질이 떨어질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인원감축 이후의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역과 규모에 따른 양극화 심화에 대해서는 "A등급을 받은 대학교는 대부분 서울권의 대규모 대학들이고 D등급부터 E등급까지는 지방대학이 주를

이룬다. 교육부에서 제시한 기준으로 인원 감축을 행하게 되면 결국 교육부의 방향과 반대된 결과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어 평가지표에 대한 문제점도 제시했다. "사립대학 법인의 책임과 재정운영의 건전성에 대한 평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이러한 종합적인 대학구조개혁의 문제점을 해소할 방안으로는 '정부책임형 구조개혁'이 있다. 이 개혁의 주요 내용은 '법정기준의 준수여부'이다. 현 정부가 시행하는 평가지표에 따르면 A등급에 속한 대학들은 법정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대학운영에 문제가 없다. 하지만, 법적으로 제시하는 기준에 대한 준수여부를 판단해서 구조개혁을 실시하게 된다면, 정량평가가 가능해진다. 이 연구원은 이 방안이 지역 간의 불균형을 일부 해소할 수 있으며, 대학 간 소모적 경쟁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한다. 법인의 역할인 수익용 기본재산, 대학지원 등과 같은 정량적인 평가 지표가 필요하다. 이에 수도권 대규모 대학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교육부는 소수가 독점해 육성하는 방식의 고등교육을 행해왔다. 이에 상생, 공존의 길이 아닌 경쟁과 도태의 사회가 되었다. 더 이상 지방대의 인원 감축을 시행할 것이 아니라 이미 과도하게

〈표〉 법정기준 적용 시 대규모 사립대학 추가감축 반영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 정원 변화 전망
출처: 대학교육연구소 (단위: 교, 명, %)

구분	대학 수	2014년		2017년(추정)		2023년(추정)			
		입학정원	비율	입학정원	비율	입학정원	비율		
계	341	537,246	100.0	501,739	100.0	403,477	100.0		
설립	국공립	49	81,805	15.2	75,643	15.1	75,643	18.7	
	사립	292	455,441	84.8	426,096	84.9	327,834	81.3	
유형	대학	204	345,459	64.3	322,419	64.3	253,517	62.8	
	전문대학	137	191,787	35.7	179,320	35.7	149,960	37.2	
지역	수도권	서울	48	90,371	16.8	88,070	17.6	65,437	16.2
		경기·인천	68	110,455	20.6	104,880	20.9	82,665	20.5
	비수도권	116	200,826	37.4	192,950	38.5	148,102	36.7	
	광역시	광역시	70	132,398	24.6	122,518	24.4	99,717	24.7
		광역시외	155	204,022	38.0	186,271	37.1	155,658	38.6
	소계	225	336,420	62.6	308,789	61.5	255,375	63.3	
규모	1,000명 미만	119	56,767	10.6	53,955	10.8	46,049	11.4	
	2,000명 미만	118	177,828	33.1	164,744	32.8	134,724	33.4	
	3,000명 미만	70	171,658	32.0	160,726	32.0	128,216	31.8	
	3,000명 이상	34	130,993	24.4	122,314	24.4	94,488	23.4	

1) 대상 : 고등교육법상 설치된 일반대, 산업대, 교육대, 전문대 341교 (본교 7교 포함)
2) 지역 : 본교는 본교 소재지에 포함 (캠퍼스는 본교 소재지 포함)
3) 규모 : 본 · 본교 분리 적용, 2천명 미만은 1천명 이상~2천명 미만, 3천명 미만은 2천명 이상~3천명 미만
4) 2017년(추정) : 2014년 교육부 재정지원과 연계한 대학별 감축계획(실적)을 반영한 추정치
5) 2023년(추정) : 법정기준 10대 지표를 적용해 사립대학 정원을 감축할 때 2017년 입학정원(추정) 3천명 이상 대규모 사립대학은 추가감축률(서울 5%, 경기·인천 4%, 광역시3%)을 차등 적용 감축

팽창되어있는 수도권의 입학정원을 감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 연구원은 "대학 정원 감축에 대한 대학구조개혁은 이미 예견된 사안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대비하지 않았고 자율성을 배제한 일방적인 정책들을 펼쳐왔다. 하지만 교육부는 현재 모든 책임

을 '대학구조개혁'을 통해 대학에게 돌리고 있다"며 교육부의 문제를 꼬집었다. 또한 지역균형 발전을 꾀하는 대학 구조개혁을 위해선 "이는 교육의 한 분야가 아닌 국정 전반에서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지수 기자 answltn15@hansung.ac.kr

힘든 수능, 대안은 없을까?

지난 17일, 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치러졌다. 60만 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수험표를 들고 시험장을 찾았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시험을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수능 이틀 전인 15일, 교육혁명공동행동과 교육운동연대는 수능 시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시위와 서명운동을 벌였다. 수능은 교육부에서 대학입시 위주의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통합적 사고력을 측정하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제도이다. 동시에 1993년에 도입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23년간 시행되어온 제도이기도 하다. 그러나 장기간 시행되었다는 것이 옳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교육혁명공동행동이 주장하는 수능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수능이 대학 서열화라는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현재 대입제도는 수능을 통해 얻은 점수로, 자신의 점수에 해당하는 대학에만 지원할 수 있다. 때문에 취업 경쟁에도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작용할, 소위 명문대학이라 불리는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입시경쟁을 치러야만 한다. 또 다른 문제로는 사교육 과잉이 있다.

수능에서 고득점을 따지 못할 것 같다는 불안함 때문에 사교육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교육통계센터에서 2014년에 발표한 '청소년의 사교육경험'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전체 인원 중 70.8%가 사교육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2월에 교육부와 통계청에서 조사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명목) 변화 추이'에 따르면, 2012년에는 23만 6천 원이었던 월평균 사교육비가 2015년에는 24만 4천 원까지 올랐다. 학생들 대부분이 사교육을 받고 있을뿐더러 사교육 부담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혁명공동행동과 수능시험의 대안으로 교육운동연대는 대입자격고사와 대학평준화를 제시했다. 김학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장은 "대학 평준화가 시행되면 대학 서열화로 인한 문제가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대학평준화는 국립대학이 사립대학과 균질한 교육여건을 갖추게 함으로써, 고등학교 교육이 명문대를 가기 위한 주입식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대학입학자격고사는 수능과 달리 절대 평가제이므로, 시험결과를 합격 혹은 불합격으로만 정해지고 3분의 2이상

이 합격한다. 따라서 치열한 입시경쟁이 해소되며, 고득점 취득에 대한 부담을 덜고, 더 이상 사교육을 받을 이유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자격고사는 수능 시험에 비해 난이도가 낮고, 부담이 적기 때문에 사교육 과잉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입자격고사가 현재 우리 교육 체제에 도입되기 위해선 많은 변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 소장은 "2018학년도부터 영어영역에 적용되는 절대평가제가 전 과목으로 확대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대학평준화를 위해선 국립대학과 대학재정 지원을 받는 일정수준의 사립대학이 결합하는 형태로 대학통합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수능을 대입자격고사로 전환해 입학생을 공동선발하고, 대학 간 학점교류제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수능이라는 제도가 지닌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수능 제도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과연 수능이 없어질 수 있을지, 그 전망은 불투명하다.

유은강 기자
dbdmsrkd3@naver.com



▲ 수능을 이틀 앞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앞에서 교육혁명공동행동, 교육운동연대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평준화와 경쟁 입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출처: 교육혁명공동행동



대통령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의 수반으로, 국가의 최고통치자이다. 헌법에 정한 바에 따라 직선제 국민투표로 선출된다. 임기는 5년이며, 헌행헌법상 중임할 수 없다. 국가원수로서 외국에 대한 대표권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 전체에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한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는 형법상 불소추 권한, 국군통수권, 공무원 임면권 등이 있으며, 계엄선포권과 비상조치·명령권 등의 비상권한을 가지고 있다.

최근 현 정권이 빛은 최악의 스캔들의 진행상황은 다른 정치스캔들의 진행과는 썩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전례가 없었던 충격적인 스캔들의 내용도 문제가 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바로 스캔들의 당사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정확히 무엇이고, 최근 상황에는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을까?

우선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의 최고통치자이며, 한 개인이 맡는 직책이자 그 자체로 하나의 헌법기관으로 취급되는 '걸어다니는 헌법기관'이다. 최고통치자답게 국가원수, 군통수권자, 행정수반과 같은 수많은 직책을 수행하며, 이 때문에 국민 일반에서도 국가의 매우 상징적인 존재로 인식된다.

이런 대통령의 권한은 '과유불급'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의 권한이 남용되어도 국가적 혼란이 발생하고, 그렇다고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원활하지 않아도 국가적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번 '최소실 게이트'를 예로 들자면, 핵심은 일개 민간인이 대통령을 통해 그 권한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대한민국 사회 전반은 막대한 손실

을 입게 되었으며, 검증 받지 못한 인재들이 국가사업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올랐다. 이것이 들뜬나게 되어 국가적인 혼란이 발생되었다는 것 역시 권한남용의 후유증이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최소실 게이트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여론과 정치권에 몰매를 맞게 되고, 실질적인 집거 상태에 들어 서게 되자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 이는 언론들이 말하는대로 '국정공백' 혹은 '국정마비'로 표현되는 상황으로, 대통령이 얼마나 막대한 영향력을 행정전반에 행사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대통령의 권한은 이런 이유로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한 특권들이 부여된다. 최근 논란이 일었던 대통령의 검찰 수사 거부 역시 이런 특권의 일환인데, 바로 '형법상 불소추 특권'이다. 대통령은 그 직에 있는 동안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형법상의 불법으로 인해 신변을 구속당하거나 기소 당하지 않는다. 누군가가 대통령을 형사고발해서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면 그야말로 국가적인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검찰이 피의자로 박근혜를 지목했다더라도, 기소도 못하고 본인이 거부하면 수사도 못하는 이유가 대통령이 이 불소추 특권에 대한 권한행사를 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중요한 이유는 만 19세 이상의 모든 국민이 참여하여 직접 선출한 선출직이며, 진흥방 속에서 지켜낸 민주사회의 꽃이라는 점이다. '탄핵'인지 '하야'인지 대통령의 거취 문제는 비단 정치권이 결정할 문제만은 아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대체 어떤 선택을 해야하는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짚어줘야 할 과제로 보인다.

이주형 기자 ljh@hansung.ac.kr

제31회 한성문학상

심사

시
강호정 응용인문학부 국어국문전공 교수

소설

김동환 응용인문학부 국어국문전공 교수

수상작

시
당선 김가운(국문 1)

소설

가작 정유진(매선 1)

• 시부문 당선작

냉동실

김가운 (국문 1)

여름에 열린 개구리는 여름에 튀겨졌다 이게 마지막인줄 알았는데, 하며 엄마가 남은 개구리를 다시 냉동실에 넣는다 나는 아직 개구리가 우는 걸 보지 못했는데 냉동실 안쪽에 퐁퐁 숨겨둔다 엄마는 항상 반지를 껴다 그건 아버지는 하지 않는 일이었다 손가락을 다쳐본 사람만이 반지를 끼는 거라고, 엄마는 나에게 말했다 다시는 다치지 않기 위해 퐁퐁 싸매는 거다 그건

마지막으로 얼굴 한번 보고 얘기하자 애인과 카페에 들어간다 정말 마지막이야 그러니까 알바생 얼굴도 외우고 카페 벽지도 외우자 다시는 안 올 곳이니까 몽뚝해진 테이블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꺾꺾 누른다 여기에 다친 적도 있는데 그게 언제지? 침묵이 끝날 때까지 침묵으로 기다린다 우리 차라리 카페 말고 북극으로 가자 이별이 쉽게 생기는 곳 몇몇 며칠 달력을 보지 않는 게 자연스러운 곳

내년 이맘때쯤 널 다시 만날 거 같아 아니 우린 다시 만나게 될 거야 우리끼리만 아는 헤어지는 일은 정말 시시하다 난 내일 아침부터 무얼 해야 해? 핸드폰 대신 리모컨을 잡으면 돼 채널을 돌리다 지구 반대편을 찍은 다큐멘터리를 보는 거지 말이 다 떨어질 때쯤엔 우리도 떨어질 수 있겠지 커플링은 어디에 둘까? 냉동실에 뒀다 내년엔 다시 꺼내서 끼게. 마지막이라며? 응 마지막이야, 남은 걸 그냥 냉동실에 두라는 거지

시부문 심사평

경험을 시적으로 잘 풀어낸 작품

제 31회 한성문학상 시부문에 제법 많은 학생이 응모를 하였다. 총 20명의 학생이 120여 편의 시를 응모하였다.

투고된 작품의 대상이 대부분 선명했고 또 공통적이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 앞날에 대한 고민' 등이 작품의 주제나 주제로 선택되었다. 시를 많이 써 본 듯한 학생도 많았다. 하지만 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잘 모르고 '응모'의 형식 앞에서 자신의 '운'을 테스트해 본 경우도 있어 보였다. 사실 누구의 작품을 당선작으로 할까 하는 문제에 대해 많이 고민하지는 않았다. 당선작으로 뽑은 학생의 작품이 다른 응모자의 작품에 비해 도드라졌다. 고민을 했다면, 이 학생이 응모한 작품 5편 가운데 두세 편을 놓고 어느 것을 뽑을까 하는 것이었다.

〈냉동실〉을 당선작으로 뽑는다. 같은 학생이 응모한 〈인공눈물〉도 준수한 작

품이어서 전체적으로 탄탄한 실력을 보여주었다. 대체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시로 쓰고 있고, 그 관계로 인해 마음을 다친 이야기를 시화하고 있다. 다친 마음의 고통을 고통이 아닌 듯이, 하나도 아프지 않다는 듯이 무심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일찍 철이 들어버린 어린 아이처럼, 그 한없이 무심한 척하는 모습이 오히려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다소 거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야기를 시로 '읽는' 방식도 뛰어나다.

당선작 외에 눈에 띄는 작품도 있었다. 〈미래 선〉, 〈잔상〉을 투고한 학생의 작품이 그랬다. 많이 써 본 솜씨인데, 깔끔하고 묘사가 뛰어나다. 그러나 그 이상의 무엇을 요구하기에는 무리일까. 묘사너머의 어떤 강렬한 인상이 적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낮은 기타와 나〉, 〈그양이집회〉같은 작품도 시적 대

상이 다른 작품에 비해 새로워서 좋아 보였다. 그러나 시선이 새로운데 비해 시적 함축의 묘미는 적다. 중언부언하는 것을 떨어내지만 해도 훨씬 좋은 시가 될 것 같다. 그 외 〈동묘시장〉의 4편과 〈늦은 밤 맥주집은 빛난다〉의 7편 등을 투고한 학생의 시도 눈여겨 볼만했는데, 좀 더 수련이 필요해 보였다.

‘문학은 혼자서 하는 것이라는 말을 오래 전에 들은 이후, 그말은 좀처럼 뇌리에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혼자서 읽고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더 좋은 시를 쓰기 위해서는 누군가와 함께 읽어보는 것 역시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한 마디 덧붙인다. 좋은 시를 쓰려거든 누구에게든 보여주고 평을 들어보시라. 물론 그 누구에게든이 본심사시켜주지 무방하다.

강호정 교수
(응용인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시부문 수상소감

편의점 알바를 하던 중 당선 연락을 받았습니다. 11월 알바비가 반토막 나 걱정이 많았는데 상금을 받게 되어 다행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몇 억짜리 말도 시술도 원하는 대로 받는데 저는 어차피 한 달이면 사라지는 알바비, 이리려고 알바를 했나 자괴감이 들고 괴로웠습니다. 그래도 이런 저의 형편을 알았는지 행운이 찾아와 기분이 좋습니다. 역시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도와주나 봅니다.

대학생이 되고, 국문학과 학생으로서 '시 쓰는 게 좀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전공과 시 창작 사이의 거리감은 생각보다 컸고 공부와 알바로 시간도 부족해 시를 쓰기 어려웠습니다. 한성문학상이 있다는 건 학

기 초에 동아리 선배님께 들었는데 마감 날 겨우 냈던 것도 이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한성문학상 당선은 저에게 주어진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부끄럽게도 시를 읽는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제 써야지, 써야지, 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막상 새로운 글을 쓰지 않던 이 시점에 하나의 자극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쓰겠습니다.

고마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선 이무기 식구들, 제가 집부 때문에 동아리에 소홀히 하지만 항상 자주 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선데이서울, 비행접시, 80년대', '빠아픈 후회', '질투는 나의 힘' 계속 같이 쓰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가운 (국문 1)

소설부문 가작

피그말리온의 서커스

정유진 (패션 1)

도시 외곽에 위치한 희준의 동네는 묘하게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다. 어른들은 그것이 향수를 불러일으킨다며 재개발이냐 뭐니 말이 많을 때에도 굳건히 동네를 지켰다. 그러다보니 동네주민들은 최소 10년 이상 얼굴을 맞대고 살아왔다. 희준 역시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동네를 떠난 적이 없었다. 옆집 장 씨 아저씨가 저녁노을이 질 무렵 담배 한 개비를 꺼내와 태우는 것도, 친구 현식이 마당을 비질하기 이전에 뿌릴 물을 뜨러 개울가로 향하는 것도 이젠 안보이면 이상한 하루 일과가 되었다. 작은 동네 사람들이 뽕뽕 뭉쳐 살고 있는지라 새 얼굴을 보기는 어려웠다. 기껏해야 도시로 떠난 이장님 집 큰아들이 명절마다 종합병비세트나 숨이비세트를 들고 찾아오는 게 전부였다. 이게 익숙한 것이었다. 나뭇 것은 없었다. 가끔 심심한 것 빼고는.

동네 입구에서 산을 향해 쭉욱 들어오다 보면 꽤나 큼직한 공터가 하나 있었다. 소도시를 중심으로 도는 신기료장수가 멈춰서 장사판을 펼치기도 하고 고등학교 축제 판이 커지면 커다란 천막을 세우고 먹거리 장터를 열던 곳이었다. 그 외에는 아이들의 놀이터로 쓰이거나 오밤중에 어른들이 조각 불에 쥐포 한조각과 막걸리 한잔을 하며 삶의 회로에락을 풀었다. 가을 추수 경에 집에서 키운 태양초 고추나 참깨들을 꺼내와 꾸덕하게 말릴 요량으로 쓰이는 게 가장 효율적이었다.

그 날은 유독 문학 수업이 지루한 날이었다. 처음이 역신에게 관용을 베푸는 저 요망한 년이 바람을 피웠다고 갱판을 치든 내가 알게 뭐람. 노란 형광펜으로 향찰부분에 직직 선을 그어대던 희준이 무료함을 이기지 못하고 책상 위로 팔씩 얹어졌다. 땀방이 가득한 흉운 동장과 저 멀리 공터까지 한눈에 보였다. 지루한 풍경에 잡이나 잘까 생각하던 희준의 시야 한 귀퉁이에 커다란 무언가가 움직이는 게 포착되었다. 실로 간단에 눈에 익지 않은 것이 보이자 자세를 바로 했다. 또 도시에서 빠져나온 트럭장사인가, 설레는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에 초점을 집중한 희준이 입을 딱 벌렸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트럭이었다. 교과서에서 본 컨테이너, 바퀴가 여섯 개 남게 달린 트럭. 희준은 생전 처음 보는 사이즈의 컨테이너트럭이 공터에 정차하는 것을 목격했다. 어른들은 다 직장이 있는 도시로 떠나있었고 제 또래 아이들은 저처럼 학교에 잡혀있었다. 다른 누군가도 희준처럼 수업 중간에 한 눈을 판 것이 아니라면 트럭을 목격한 건 현재로서 희준이 유일했다.

처용가에 지루함을 느낀 것은 비단 희준뿐만이 아니었다. 수업이 끝나갈 무렵 예지가 할 공터 좀 봐봐! 라며 소리를 질렀고, 동시에 모든 아이들의 집중력이 흐트러졌다. 어디어디? 아이들은 창가로 몰려왔다. 트럭에선 알록달록한 천과 파이프 같은 것들이 나와 하나 둘씩 자리를 잡더니 이내 대형 천막을 이룬 채 공터를 꽉 채우고 있었다. 곧 컨테이너 쪽에서 물건들이 우수수 쏟아져 나와 천막 안쪽으로 들어갔다. 구경하던 아이들의 정신을 일깨운 것은 출석을 부르는 선생의 목소리였다. 희준이 자세를 바로 했다.

기대하는 게 생겼더니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다. 담임 선생님이 종례를 위해 교실로 들어오기 전 부터 부리나케 책가방을 챙겨왔던 희준은 해산하라는 말에 바로 교실을 박차고 뛰어나갔다. 휴먼지를 일으키며 공터에 도착했을 때는 막 천막이 완성된 모양인지, 위엄을 뽐내며 색색의 깃발을 나부끼고 있었다. 어릴 적 아버지 선물로 사다준 동화책에서 나올 법한 모습이었다. 직감적으로 희준은 천막의 용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서커스 동화책 표지를 장식하던 원색의 천막이 실제로 눈앞에 나타나있었다. 몇몇 아이들이 희준의 뒤로 공터에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다. 조심스럽게 천막을 손으로 쓸어보던 현식이 가장 먼저 말을 댔다.

"아무도 없나...?"
"아닌데?"

현식이 손으로 쓰다듬던 천막을 뚫고 또래 정도로 보이는 사내아이가 튀어나왔다. 지레 질겁한 현식이 뒷걸음질을 치며 천막을 쓰다듬던 손을 탈탈 털어냈다.

"야, 너더러운 거 아니그든?"

그런 현식을 보고 빈정당한 모양인지, 사내아이는 천막을 비집고 나오느라 험글어진 머리를 손으로 대충 매만치고는 투덜댔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했다. 청바지, 건어 올린 줄무늬 티셔츠, 교복을 입혀놓고 희준 쪽 무리에 섞여있다면 위화감 하나 없이 녹아들 법했다. 사내아이는 개구진표정을 지우지 않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희준의 무리를 훑었다.

"이 동네 애들이야? 반갑다!"

"어...야이거 뭐냐?"
"이거? 우리 천막!"
"아니, 천막인 건 아는데....."

서커스 천막이야? 사내아이가 현식의 궁금증을 풀어 주었다.

"나는 피그말리온 서커스단의 곡에서 박지민이라고 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조각상 덕후에게서 따온 거야. 이름 존스럽지? 나두 알아!"

자연스레 자기소개를 한 지민이 아이들을 둘러보더니 희준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반자동적으로 손을 맞잡아 악수를 한 희준이 입을 해벌죽 벌리고는 커다란 천막을 올려다봤다. 학교와 공터 사이의 거리가 꽤 멀어서인지 눈앞에 있는 천막의 크기는 아까 대충 예상했던 것 보다 훨씬 거대했다. 그런 희준을 바라보던 지민이 물었다.

"많이 신기해?"
말없이 고개를 주억거리며 대답을 대신한 희준이 눈을 데굴데굴 굴렸다.

"우리 동네에서 서커스 열거야?"

"뭐... 그런 것 같은데?"

"이 작은 동네에?"

희준의 질문에 이어 예지가 끼어들어 물었다. 지민이 눈을 찡어 웃으면서 고개를 까다였다. 이어 천막이 한 번 더 바스락 거리더니 또 다른 사내아이가 불쑥 튀어나왔다. 짹, 단장이 니 찾는다. 사내아이는 희준의 무리는 보이지도 않는 듯 단도직입적으로 지민에게 용건을 던진 후 다시 천막 속으로 사라졌다. 아니, 사라지는 줄 알았더니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해맑게 웃으며 다시 튀어나왔다. 새로운 친구들이기? 사내아이는 연신 싱글벙글 웃었다. 때 아닌 정자에 멍뜨어진 희준이 뒷목을 긁적이지가 그가 희준에게 가서 냉큼 어깨동무를 했다.

"와, 니 좀 잘생겼다."

"어, 어?"

굳이 좋은 말을 해주는 아이를 떨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희준이 거만히 몸을 맡겼다. 알 수 없는 쿿노래를 흥얼거리던 사내아이가 방금 생각났다는 듯 무릎을 탁 치는 흉내를 냈다. 일결에 사내아이의 어깨동무에서 풀려난 희준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주춤거렸다.

"니 내 이름 모르제? 채형원이다, 형원. 후자에 쓴다."

"나는 김희준....."

"이름 좋다!"

가치런하 아랫니를 보이며 형원이 웃었다. 같이 웃어 보일 수밖에 없는 웃음에 희준이 긴장을 풀었다. 몇 년 만에 만나는 친구를 대하는 것처럼 형원이 희준의 손을 잡아잡고는 이곳저곳을 누볐다. 아직 무대까지 완성되지는 않았으나 천막 안쪽도 구경할 수 있었다. 자리를 잡지 못한 갖가지 의상들은 물론, 서커스에 쓰이는 훈련된 동물들과 괴상한 도구들까지 즐비하게 늘어져 있었다. 오색가지 홀라후프가 쌓여있는 것을 본 희준이 조심스레 손을 뻗었다. 그러나 까무잡잡한 큰 손이 희준의 팔목을 잡아채며 경고했다.

"만지지는 마라."

"아, 미안..... 실수야!"

"잘못한 게 아니라, 날 위해서 그런 거다."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답이었으나 희준은 그러려니 하고 맞장구쳤다. 박스포장을 뜯고 있던 남자가 형원을 보곤 손을 휘휘저어보였다.

"형, 또 똥방이?"

형원이 가지미늘을 만들었다. 그것을 완벽하게 무시한 아이가 궁시렁거렸다.

"일이 이만저 이만 있는데 지는 장난질이나 하고....."

"어, 박스만 풀면 되는 거야?"

"도와주게?"

희준의 말을 들은 아이가 화색을 띤 채 되물었다.

"많이 힘들면 도와줄게. 그냥 구경만 하면 우리가 민폐인 것 같고"

"대박, 그러면 박스포장을 다 뜯어서 물건만 꺼내놓으면 돼. 손으로 만져도 괜찮은 것들이야!"

"전현욱."

이 아기가 현욱이란 아이구나. 형원의 입에서 나온 호칭에 즉각 반응하는 아이를 보며 희준이 생각했다. 아까 전 현원의 낮간지러운 말이 떠올랐다. 행여 붙여진 얼굴이 들킬까봐 현식의 옆자리로 향했지만 다시금 자신의 손목을 잡아채는 손길에 저지당했다. 형원이 희준을 끌고는 반대편으로 향했다.

"야야, 나는 왜?"

"저거 말고 내 좀 도와와."

형원의 손에 잡혀 끌려가듯 바깥으로 향했다. 희준

의 친구들은 현욱을 도와주는데 여념이 없었다. 자신이 사라지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의 뒷모습을 보며 희준이 서운함을 느꼈다.

"아들이 니 사라지는지 모르니까 서운하냐?"

귀신같이 희준의 심정을 눈치 챈 형원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졸지에 치부까지 날날이 파헤쳐진 기분

에 희준이 고개가 부정을 표현하며 쩍샤게 흔들렸다.

"꽤안타. 대신 내 재미있게 놀아줄게. 니 서커스 처음 보제?"

"응. 우리 동네에 이런 거 처음 오거든."

희준의 손가락이 천막을 가리키며 말했다. 안다. 우리도 여 처음 오니까. 자신의 말을 가지고 노는 형원의 모습에 희준이 입술을 삐죽였다. 그 모습이 귀엽다는 듯 형원이 이를 들어내 보이며 웃음을 터뜨렸다.

"구경시켜주까?"

형원의 손이 가리키는 것은 천막을 비롯한 물건들이 들어있던 거대한 컨테이너 트럭이었다. 희준이 호기심 어린 눈을 한 채 고개를 마구 끄덕였다. 괜히 형원이 약속을 무릎까봐 걱정되었는지 손을 꼭 잡았다.

"알았다. 대신..."

라는 말과 동시에 아무것도 달려있지 않던 희준의 손목 위로 손수건 하나가 나타났다. 우와, 하고는 감탄사를 내뱉은 희준이 자신의 손목과 형원의 손을 번갈아보며 신기해했다.

"선물. 풀면 내 슬퍼 할거다."

"안 풀어요, 안 풀어요."

희준이 안심시키듯 형원을 달래며 말했다. 만족한 듯 형원은 손수건이 묶인 희준의 손목을 끌고는 곧장 컨테이너 안쪽으로 향했다. 완벽하게 빛을 차단시킨 실내는 바로 앞도 분간하지 않을 정도로 어두웠다. 형원이 희준의 손을 잡고 있지 않은 자유로운 손으로 벽면을 더듬거렸다. 스위치를 찾았는지 달각거리는 소리와 함께 실내가 밝게 비춰졌다.

알알의 전구들이 달린 큼직한 거울과 색색의 옷이 걸려있는 옷걸이, 칭칭 동여매어져있는 수많은 박스들과 피그스러운 갈과 밧줄들이 널려있었다. 컨테이너 반대편에는 얇은 철장으로 지어진 우리가 있었다. 입을 해벌죽 벌린 채 열심히 구경하는 희준을 끌고 형원이 안쪽으로 나아갔다.

형원의 손에 붙잡혀 가면서도 보이는 것을 짚어가며 물어보는 희준이 목소리에는 신이 잔뜩 나 있었다. 이해한다는 듯 형원이 간단하게 물어본 것들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가장 어지럽혀져있는 분장대 앞으로 향한 형원이 거울을 마주보게 희준을 앉혔다. 영문도 모른 채 거울로 형원이 하는 행동을 살피던 희준이 이내 웃음을 터뜨렸다. 빨간색 동그란 코와 후츰근한 원색의 정장 큼지막한 구두. 형원이 무슨 분장을 하는지 바로 눈치 챘다. 그리고 보니 거울 앞에 늘어져있는 화장품들은 다 진한 색조화장품이었다.

"사투리 쓰는 관대야?"

"이거 할 때는 사투리 안 써."

빨간 코를 붙인 형원이 짐짓 낮은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했다. 위화감 없는 표준어 구사에 희준이 두 손으로 박수까지 쳐 보았다. 우스꽝스럽게 과장시킨 목소리로 형원이 자기소개를 했다. 손가락 스냅이면 희준의 귀 위에서 장미꽃이 튀어나오고, 임버람으로 부풀린 풍선이 헬륨을 넣은 것 마냥 자유롭게 공중에 떠다녔다. 거대한 모자 속에서 마지막으로 비둘기까지 꺼내 보인 형원이 두르고 있던 망토로 희준과 자신을 덮었다. 큼지막한 망토는 두 사내아이를 덮고도 품이 남았다. 희준이 장난스레 망토를 걷어내기 위해 손을 휘적였다. 그러나 망토를 더듬던 손은 차갑게 식어있는 형원의 손에 의해 제지되었다. 왜, 라고 묻기도 전에 낮은 목소리가 나지막히 경고했다.

"박지민이랑, 전현욱이랑, 서커스 사람들은 아무도 만지 마라."

"왜?...그럼 너도 만지 마?"

"내 안 믿을 기가?"

형원이 시무룩하게 되물었다. 덤다며 머리 위를 지나가는 망토를 치운 희준이 푸스스 웃었다.

"믿을거 말까?"

장난기 어린 목소리에 형원이 짐짓 심각하게 대꾸했다.

"진짜로 나만 믿을 된다."

갑자기 진지하게 흘러가는 분위기에 당황한 희준이 어설픔게 웃었다. 사람 좋아보이는 전현욱도 박지민도 다 속에는 칼 같고 있는 놈들이다. 단호한 형원의 말이 뒤를 이었다. 도저히 장난인지 진심인지 알 수 없는 말의 연속에 희준이 혼란스러워했다. 그런 희준의 모습을 서늘하게 바라보던 형원이 이내 얼굴표정을 펴고는

덧붙였다.

"밤에 공연 꼭 놀러와라. 오면 재미있게 놀아줄게."

마지막 손가락 스냅에 희준의 머리 위로 화관이 씌워졌다.

-

"우와 이게 누구야?"

예지가 탄성을 지르면서 희준의 옆구리를 쳤다. 피그스러운 광대가 희준을 뺨히 바라보고 있었다. 광대에게선 오후 내내 경험했던 손길과 같은 느낌에 같은 향이 났다. 형원이? 조심스럽게 물어 본 희준의 시선이 광대의 옷차림으로 향했다. 형원이 컨테이너 속으로 끌고 가 보여준 그 옷 이었다. 그제야 경계를 풀어 낸 희준이 맑게 웃어보였다. 광대가 바르게 허리굽힌 인사를 하고는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친구들의 손아귀에 이끌리듯 들어간 천막 속은 동화책 같았다. 서커스를 시작하기 전 예행연습 겸 기다리고 있는 관객들의 눈을 즐겁게 해줄 재주들이 이것저것 펼쳐지고 있었다. 저 쪽 구석에서는 귀엽게 생긴 강아지들이 툭니버퀴 위를 아무렇지 않게 질주하는가 하면

지민과 지민의 친구로 보이는 사내아이가 공중에 매달린 그네를 타며 곡예를 선보이고 있었다. 아찔한 높이에 매달려있는 그네 위에 유유자적하게 앉아있는 지민은 고작 티셔츠에 멜빵바지 차림이었다. 양팔은커녕 맨발로 허공을 가르며 놀았다. 재주에 완전히 시선이 빼앗긴 희준이 잠시 자리에 서서 지민을 구경했다.

열심히 구경을 하던 희준의 손을 누군가가 잡았다. 형원 못지않은 진한 메이크업을 얼굴에 얹고 있던 현욱이었다. 그 손이 유난히 뜨거웠다. 희준이 대꾸하지 않고 잡힌 순간 내려다보고 있자 머쓱해진 현욱이 희준의 손을 풀어주었다.

"천막 안 쪽 깊숙하게 우리 속소가 있거든. 분장실 겸으로 형원이 형방에 가서 형 놀래켜 볼 생각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야."

"....."

"형원이 형이 내 얘기 듣지 말라고 했지? 그 형 장난을 너무 잘 친단 말이야!"

현욱의 물음에 희준이 조용히 끄덕였다. 이미 예상하고 있던 대답인 듯 현욱은 그다지 기분나빠하지 않았다. 단지 난감하다는 듯 뒤뚱수를 연신 매만졌다.

"나쁜 짓 하는 거 아니구, 형원이 형이 원래는 새로운 사람들이라 잘 안 지냈는데 너랑은 잘 지내는 것 같아서. 형 놀래키고 장난도 쳐 보고 괜찮지 않을까?"

현욱이 희준을 슬슬 회유시켰다. 달콤하게 유혹하는 말은 흥미로웠다. 형원에게 자신이 특별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희준이 불을 붙였다. 입에 발린 소리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듣기에는 좋았다.

"안 그래? 니가 싫으면 안 해도 돼. 끝나고 만날 수도 있긴 한데, 아무래도 공연도 끝나고 관객들도 배웅해야 하니까 만나기 힘들 것 같아서."

미련 없다는 듯 돌아서려는 의도가 다분한 현욱이 말은 희준을 낚아채기에 충분했다. 뒤 돌아서 사라지려는 현욱의 옷자락을 희준이 붙잡았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표정을 싹 지운 현욱이 자신을 잡고 있는 희준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화들짝 놀라 현욱을 붙잡고 있던 손을 거둔 희준이 시선처리를 하지 못하며 무뎠거렸다.

"나, 나 뒤에 들어가도 괜찮아?"

"응. 내가 들어보내줄게."

마음을 정한 희준의 대구에 함박웃음을 지은 현욱이 손을 잡고 이끌었다. 두꺼운 분장 때문인지, 조금은 어둡고 몽롱한 조명 때문인지 아니면 기분 탓인지, 현욱의 미소가 소름끼치게 느껴졌다. 순간 등골을 오싹하게 만든 현욱의 미소를 본 희준의 표정이 급격하게 굳었다. 그러나 다시 확인한 현욱의 얼굴은 영업용 미소가 생글생글하게 매달린 채 지나가며 사람들에게 인사를 날리고 있었다. 잘 못 본 거겠지. 희준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로 했다. 하나씩 꼼꼼하게 따져본다면 애초에 이 서커스 자체에 의문을 품어야 했다. 공연의 시작을 알리는 트럼펫 소리가 천막 내에 울려 퍼질 때 희준은 현욱을 따라 구석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시끄러운 관객석과는 다르게 공연장 뒤는 한적하기 그지없었다. 아직 어둠에 눈이 익숙해지지 않은 탓에 희준이 고개를 이리저리 흔들었다. 현욱은 자신을 들이밀다시피 구석에 데려다두고는 곧 자신의 공연차레가 다가온다면서 순식간에 사라졌다. 떠밀리듯 들어온 공간은 매우 어두컴컴했다. 유일한 빛 공급 수단인 촛낮은 전구 몇 개는 발 앞에 불꽃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만 구분할 수 있게 만들었다. 갖가지 동물 탈이며 알록달록하게 꾸며진 도구들이 난잡하게 널려있었다.

조금 깊숙이 들어가자 꼭 분장실과 같은 모양새로

여러 가지 방들이 밀집해있었다. 얇은 천 커튼으로 분리되어 있는 방들은 저마다 문패 하나씩을 달고 있었다. 익숙한 이름이 보이기도 했고, 도구들을 정리해두었는지 심플하게 대나무, 다투와 같은 단어들만 달려있기도 했다. 지민의 이름이 달린 문패까지 찾긴 했는데 형원의 이름이 보이지 않았다. 물래 숨어 있다가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목표였으나 이리다간 우왕좌왕하는 모습으로 형원에게 먼저 들길 것만 같았다. 분명 현욱이 도움 없이도 찾아갈 수 있는 쉬운 구조라고 언급했었으나 도저히 분간을 할 수 없는 환경이 저를 맞이하고 있었다. 초조한 마음에 희준이 발걸음을 재촉했다.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전등 빛이 잘 닿지 않았다.

한참을 헤맨 것 같은데도 무대의 뒤쪽은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천막 속 공간이 이렇게 넓을 수가 있나? 희준이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며 투덜댔다. 이젠 그냥 관람석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슬슬 커튼에 달린 문패를 읽는데 질릴 무렵, 그토록 고대하던 이름 석자가 희준의 눈에 띄었다. 채형원. 희준이 조심스레 커튼을 손가락으로 건드렸다. 천이 팽터짐과 동시에 먼지 목은 냄새가 살짝 배어 나왔다. 간질거리는 코를 감싸 쥐고는 슬쩍 머리를 안쪽으로 들이밀었다. 안 그래도 낮은 축의 전구가 커튼에 가려 빛이 잘 들어오지 못했지만 어둠에 익숙해진 눈은 시야확보를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큰 거울달린 화장대와 난잡하게 어질러진 색조 화장품들, 싸구려 향수와 갈기갈기 찢긴 휴지조각들, 한쪽 벽에 잔뜩 쌓여있는 박스들까지 딱 형원의 분위기가 나는 곳이었다. 희준이 커튼 바로 옆에 세워진 옷걸이를 눈으로 훑었다. 처음 만난 날 입고 있던 셔츠와 바지가 걸려있었다. 요상한 페도라 모자와 광대가면까지 확실하게 형원의 것 이었다. 손가락이 옷걸이에 걸려있는 옷소매를 잡아당길 때 즈음 누군가가 희준을 잡아채고는 마사 안으로 몰았다. 구석까지 몰린 희준은 순간 당황했으나 익숙한 체항에 긴장을 풀었다. 형원이 눈을 부리부리하게 뜯 채로 희준을 내려다봤다. 막 씻고 돌아 온 모양인지 반짝 입은 셔츠와 왁스도도 잠재우지 못한 잔머리들이 물에 푹 젖어있었다. 형원이 거친 목소리로 희준을 몰아갔다.

"나와 여기 있노? 어떻게 왔는데? 전현욱이가? 와, 미치겠네 진짜."

"아니 나는 응원, 너 놀래켜줄라고...... 현욱이가 괜찮다구....."

형원의 표정이 잔뜩 일그러졌다. 화장기는 가서 있었으나 시계말개 칠한 눈두덩이는 물이 잘 빠지지 않아 여전히 갈렸었다. 그만큼 인상도 많이 굳어져 보였다. 물에 젖어있는 앞머리를 대충 털어내던 형원이 희준을 밀치고는 급하게 제 마사 안쪽으로 들어갔다. 큰 손이 구석에 자리 잡고 있던 짐덩이를 뒤졌다. 두툼한 담요를 꺼낸 형원이 희준을 그 속에서다 둘둘 말았다. 이목구비만 겨우 보일정도로 가리고는 담요 밑으로 빼져 나온 손을 잡아챘다.

"여가 어떤 줄 알고 함부로 기어들어오노. 내가 나 말고는 아무도 만지 말랬제. 박지민도, 전현욱도 속에 갈을 품고 있다 했잖아."

"근데 개네는 널 만지 말라고 장난 많이 치는 애라고....."

"지금 나보다 개네를 더 믿어?"

흥분하면 표준어를 쓴다는 말이 거짓말은 아닌 모양이었다. 평소 같으면 질투로 보였을 법한 말투였지만 늘 웃고다니던 얼굴이 잔뜩 구겨져 있으니 분위기가 달랐다. 형원이 담요를 뒤집어 쓴 희준을 끌고 마사를 나섰다. 사람들이 하나 둘 씩 무대 뒤편으로 돌아오는 모양인지 고요했던 복도가 점점 시끄러워지고 있었다. 급하게 주변을 살피던 형원이 들어온 입구의 반대편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깊숙히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시시잖은 물건들이 상자째로 쌓여있는 탓에 발 디디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다. 낮은 축의 전등 빛이 닿지도 않을 무렵, 낮은 목소리가 둘의 발목을 잡았다.

"새로 데려온 건가? 잘 골랐어?"

낮다고 생각하는 형원의 목소리보다 훨씬 더 낮은 목소리였다. 그러나 듣기 좋은 중저음이 아니라 두려움에 떨게 만들 목소리였다. 형원이 본능적으로 희준을 제 뒤에 숨겼다. 경계적인 태도에 희준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몸을 숨길 수밖에 없었다.

"아닙니다. 길을 잘못 든 아이입니다."

단호하게 대답하며 형원이 희준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팔뚝을 거세게 쥐는 악력에 희준이 작게 앓는 소리를 냈다. 주변 기운이 점점 더 서늘해짐이 느껴졌다.

여기에 발을 들인 이상, 나가는 것은 자유롭지 않은 거 너도 알 텐데.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의 향연에 희준이 눈을 굴렸다. 어둠에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눈이었지만 이젠 질투같은 어둠 뿐이었다. 바로 제 앞에서 서 있는 형원의 등편만 흐릿하게 느껴질 뿐 보이는 것이 없었다. 멀리서 어렴풋이 서늘한 계열의 빛이 느껴졌다. 오는 길에 걸려있던 낮은 축의 전구들과는 또 다른 느낌의,

"제가 도로 내보낼 겁니다."

형원의 반응에 알 수 없는 목소리가 호통 치듯 웃었다. "너에게 그 정도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조용하듯 목소리가 울렸다. 형원의 손이 희준의 손을 찾아 깎지를 꼈다. 쉬어버린 목소리를 내기 위해선 상대를 굽어내는 노력이 필요했다. 희준과 맞붙잡고 있는 손 사이로 팔이 채웠다. 긴장한 티가 역력했지만 최대한 표출하지 않기 위에 자기 자신을 억눌렀다. 형원이 혀로 매마른 입술을 적었다. 아까 발랐던 싸구려 립스틱의 맛이 혀 끝으로 옮겨왔다.

"힘은 없지만 거래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래? 내가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형원이 낮게 웃었다. 잔뜩 쉬어버린 목이 섬뜩한 분위기를 돌구었다. 잠시 발치를 바라보다가 허공을 바라보기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에 걸려있는지 시간을 끌었다. 간간히 서커스 무대에 환호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형원이 희준의 손을 고쳐잡았다. 잠시 손 틈으로 스며든 바람이 둘의 결합을 차갑게 식히고 지나갔다. 음침한 목소리가 희준을 그 애라고 칭하며 형원에게 경고했다.

"그 애를 위해 자신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

"네. 다른 애들처럼 모든 걸 내어주면 됩니까?"

아무런 거리낌 없이 대답한 형원에 오히려 당황한 것은 희준이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는 가늠이 잡히지 않았지만 확실한 것은 자신을 위해 형원이 본인을 희생시켰다는 것 이었다. 희준이 잡고 있는 손에 힘을 주었지만 형원은 아랑곳 없었다.

고민을 하느니 저음의 목소리가 들려오지 않았다. 형원이 살짝 고개를 젓혀 희준에게 속삭였다. 가자. 조심스레 발을 뒤로 디딘 형원이 희준을 잡아당겼다. 자리에 붙박혀있던 희준이 형원에게 이끌려 주춤주춤 자리를 떴다. 낮은 목소리가 계속해서 귀에 이명을 남겼다. 채형원이라는 팻말이 달린 천막을 지나갈 때 즈음, 형원이 달리기 시작했다. 잡혀있던 손에 이끌려 희준 역시 발걸음을 빨리 높였다. 들어오기까지 한참이나 걸렸던 미로 같은 무대의 뒷편을 순식간에 빠져나갈 수 있었다. 여주 환하게 비추고 있는 서커스 무대는 이제 전 출연진이 올라가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있었다. 무대를 빠르게 훑던 희준의 눈에 현욱이 잡혔다. 순간, 둘의 눈이 마주쳤다. 현욱이 붉게 질해진 입술로 호선을 만들며 작은 은장도를 꺼냈다. 가벼이 날아간 은장도는 판자 위에서 곡예를 하고 있던 지민의 손에 같이 잡혔다. 손가락 사이에 끼인 칼이 불빛을 반사시켰다. 희준의 걸음이 느려졌음을 깨달은 형원이 깎지긴 손에 힘을 주고는 세계 잡아당겼다. 천막을 통과하자 서늘한 밤바람이 둘을 맞이했다.

손을 붙잡고 부리나케 달렸다. 서커스는 공연 막바지에 다다랐는지 함성과 폭죽 터지는 소리로 한가득이었다. 동네사람들이 모두 천막을 방문했는지 골목길은 고요하기 그지없었다. 거리의 집들은 모두 작은 불이 켜져 있거나 아예 꺼져있었다.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다. 희준이 자신의 집으로 향하는 길을 알려주기 위해 입을 열었으나 형원이 훨씬 빨랐다. 설명하지 않아도 무슨 골목에서 어디로 쫓아야 하는지 다 알고 있었다. 보통내가 아님을 방금 깨닫긴 했지만, 이 정도 일 줄은 몰랐었다. 희준의 집 역시 새까맣게 물들어 있었다. 형도 엄마도 아무도 집에 없었다. 대문앞까지 달려간 희준이 문을 열기를 망설였다. 둘 다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문을 여는 순간이 바로 이별이라는 것을.

"희준아, 내 담에 꼭 찾아올게. 이거 잃어버리지 말아!" 형원의 손이 손수건을 더욱 확으며 말했다. 희준은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내 잊으면 안 된다."

"너를 어떻게 잊어?"

희준이 손목에 두른 손수건을 흔들며 칭얼거렸다. 멀리서 사람들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시간에 촉박한지 형원이 골목 아래와 희준을 번갈아 바라보며 발을 굴렀다. 뜨고 싶지 않아 안달이 난 모습이었다. 형원이 불안한 손으로 희준의 눈을 가렸다. 왜 가려? 물어보았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었다. 그것이 팬시리 사람을 서럽게 만들었다. 눈을 가리고 있는 형원의 손이 희준의 눈물에 젖어들어갔다. 표현하기 힘든 불안함과 감정이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희준이 손을 뺐어 형원의 얼굴을 만지려고 했지만 잡히는 것이 없었다. 시야는 여전히 형원의 손이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었다.

"형원아."

희준이 나지막하게 형원을 찾았다. 돌아오는 대답이 없었다.

-

"엄마, 형원이 안 왔어?"

"누구?"

"채형원, 그 서커스단 광대!"

"애가 잠이 들겠나, 뭐래?"

"형원이가 아집에 온다구 했어."

"채형원이가 누구래? 친 친구들 중에 그런 애가 있어?" 언제 잠들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요란한 알람소리에 이끌려 눈을 뜬 희준은 잠옷 차림으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방바닥에 어제 입고 있던 옷들이 뺨의 허물처럼 늘어져 있는 것이 보였다. 양치를 할 요량으로 들어간 화장실에서 여태껏 손목에 묶여있던 손수건을 확인했다. 머릿속에 형원과 어젯밤의 일이 스쳐지나갔다. 뭉클거리는 소리를 내며 마루를 가로지른 희준이 속사포 같은 질문을 쏟아냈다. 희준의 어머니가 듣고있던 국자로 국을 저으며 희준을 쫓아냈다. 얼결에 화장실로 다시 직행하게 된 희준이 얼굴에 물을 끼얹으며 기억을 회상했다. 분명, 형원이 자신은 전 알까지 데려다 주며 다시 보자고 속삭였었다. 아직까지도 도둑고양이 같은 뽀뽀가 입술 위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팬스레 얼굴에 열이 오른 희준이 입술을 감쳐물었다.

"형원이 안 왔어? 안 왔어?"

"아니 애도 참. 처음 듣는 이름을 들먹이면서 왜 그러데. 꿈을 심하게 꿨나."

"꿈 아니야. 이거 준 앤데....."

희준이 팔뚝을 들이밀며 말했다. 독특한 문양의 손수건이 형원이 매어줬던 그대로 손목에 달려있었다.

"어머, 그거 어디서 냈나? 엄만 처음 본다."

"엄마 장난치지 말고요."

"진짜야, 희준아. 엄마는 형원인지 형원인지가 누군지 모르고 이것도 처음 본다."

희준이 아리송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는 형원을 기억하지 못했다. 진실을 말하고 있는 두 눈에 희준이 큰 혼란을 느꼈다. 아들, 팬잖아? 희준의 안색이 파랗하게 변하는 것을 눈치 챈 어머니가 물었다. 가깝스로 고개를 끄덕여 보인 희준이 어지러운 머릿속을 정리했다.

"엄마, 그 공터에 왔던 서커스단 갔어?"

"서커스단이라니?"

도저히 희준의 말에서 갑피를 잡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애초에 서커스단은 존재도 하지 않은 것처럼 구는 모습에 큰 혼란을 느꼈다. 분명 어젯밤에 모든 동네사람들을 서커스 공연에서 만난 기억이 있었다. 현욱의 속센에 휘말려 공연장의 뒤편도 구경하고, 화가 난 형원의 모습도 보았었다. 마지막까지 오싹한 모습을 보여준 현욱까지. 만약 꿈이었다면 손목에 매달린 손수건은 사라져야 했다. 크게 혼란을 느낀 희준이 기억을 되짚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은 공터를 매우던 컨테이너트럭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정작 공연을 제대로 관람하지 못한 제 자신이 공연을 끝까지 관람하고 왔을 어머니보다 더 많은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예지와 현식이 부질없는 것으로 말쑥을 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야, 왜 나 어제 두고 갔어?"

"뭘 두고 가. 우리 어제 어디 간 곳이 없는데."

"서커스에서 니네끼리 사라졌잖아."

"무슨 서커스? 김희준 꿈 꿨어?"

예지가 되물었다. 대중 분위기를 파악하게 된 희준이 입을 굳게 다물었다. 동네사람들의 기억에서 서커스라는 것이 사라진 게 분명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모두가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터였다.

희준이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 운동장은 어느 때와 다름없이 평화로웠다. 멀리 보이는 공터역시 언제 시끄러웠느냐는 듯 텅 비어 있었다. 버릇 적으로 희준이 손목을 매만지다가 주머니에 손을 꽂아 넣었다. 곱게 접어 넣었던 손수건의 부드러운 천이 손가락 끝에 느껴졌다. 형원아, 마지막으로 이름을 불렀던 것이 기억났다. 희준이 입 밖으로 이름을 한 번 불러 보았다.

"채형원."

소설부문 심사평

소설의 미덕(美德)은 구성에 있는데

아홉 편의 소설은 그 미덕을 보여주는데 하나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소설의 플롯은 '음모(陰謀)'라는 뜻도 지니고 있습니다. 음모는 치밀해야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올해 음모작들은 음모들이 어설피게 꾸며졌거나 순식간에 정체를 드러내 보이는 바람에 아쉬움을 주었습니다. 마감 시간에 쫓긴 흔적이 역력한 작품들, 습작 기간이 짧았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작품들, 자의식의 세계에서 미쳐 빠져 나오지 못한 작품들이 구성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이야기에 머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신선한 발상, 탄탄한 문장력을 보여주는 작품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성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소설로서는 미달형입니다.

「낯선 아담」(박예은), 「구멍 난 나이롱, 찢어지지 않는 나이롱」(김호연), 「피그말리온의 서커스」(정유진). 세 편의 소설이 망설임과 고민 속에 손에 남았습니다. 「낯선 아담」은 이방인의 정체성과 존재의식을 플롯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갈등 구조도 그대로 잘 짜여있고 서사적 긴장감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사의 인과성이 부족했습니다. 「엄마」와 「아담」의 행동과 태도가 사건의 핵심인데도

정작 사건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멍 난 나이롱, 찢어지지 않는 나이롱」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풀어나가는 솜씨가 주목을 끌었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사회의 문제로 확장될 수 있는 여지를 안고 말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안실」, 「사무실」, 「조사실」로 이어지는 장면들을 주제로 수렴시키는 짜임새가 부족했습니다.

「피그말리온의 서커스」(정유진)를 가작으로 냈습니다. 「희준」과 「형원」의 첫 만남, 희준을 지켜내는 「형원」의 태도, 광대와 피그말리온의 내적 연관성 등이 모호했습니다. 애써 데려온 「피그말리온」이 서사 구조 속에서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형국입니다. 그런 지경에 처해있던 「피그말리온」이 구조 밖으로 밀려나지 않고 조각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붙잡아 준 것은 「꿈」과 「미로」라는 장치였습니다. 「자기애(自己愛)」의 은유와 함축이라 포장해 주기에 미흡함이 있지만 이 구성력을 가능성으로 읽어주시기로 했습니다. 당선작으로 내지 못해 아쉽지만 정진을 기대해봅니다.

김동환 교수
(응용인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소설부문 수상소감

사실 저는 태어나서 서커스를 본 적이 없습니다. 서커스단이 들어오지 못하는 오지에서 유년기를 보냈었고, 머리가 조금 큰 다음 대도시에 상경했을 때 즈음엔 이미 서커스는 옛날이야기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서커스라고 하면 저에게는 또 다른 세상 같다고 느꼈고, 동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글을 쓰게 된 계기도 그렇습니다.

원고를 최종적으로 제출하기 직전까지 꼭 3명의 친구들에게 퇴고를 부탁했습니다. 글을 쓰면서 몇 십번씩 다시 읽어본 까닭에 스스로의 글에 질려가던 것도 이유라던 이유겠지만 사실 타인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글은 스스로만 퇴고하고, 스스로만

풀어가던 것 인지라 그렇게 퇴고를 부탁하는 것도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3명의 친구는 각자 다른 평을 내놓았습니다. 가지각색의 평이 돌아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평이 좋지 않다면 제출하기를 접으려고 했는데, 흥미로운 평을 많이 받았더니 더 큰 욕심이 생겨버린 듯 합니다.

이 글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읽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글이 읽어주셨다는 사실만으로 기뻐하고 있으며, 동시에 속스러움에서 헤어 나오질 못하는 중입니다.

저만의 서커스 뼈대를 만들어 낸 기분입니다. 주춧돌을 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유진 (패션 1)



트럼프의 당선, 그리고 '신고립주의'

최근 국제정세의 핵심 단어는 단연 '신고립주의'이다. 신고립주의는 오바마 정부 시절부터 대두되었다.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신고립주의'의 영향력은 더욱 커졌다. 트럼프는 연설에서 "미국을 위한 정치, 미국을 위한 외교"를 하겠다고 말했다. 대신 당시 방위부담금을 100% 지불하지 않으면 주한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공약과 멕시코 장벽을 세워 미국인의 일자리를 보장하겠다는 공약은 트럼프가 가진 신고립주의적인 성향을 보여준다. 이처럼 국제사회에서 '신고립주의'는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신고립주의는 과연 무엇일까.

신고립주의의 배경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미국의 외교정책을 설명하는 입장은 크게 고립주의와 개입주의에 기반을 둔 채,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 상황은 미국이 국제경찰로서의 역할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개입주의적 입장, 경제 상황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높은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경제외교를 해야 한다는 고립주의적 입장으로 나뉜다. 트럼프의 당선은 고립주의적 입장에 동의하는 국민이 많아진 현상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립주의'는 기존의 '고립주의'의 변형된 모습이다. 따라서 신고립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선 '고립주의'의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고립주의는 미국 역사의 초창기 시절부터 등장했다. 탈냉전기 이후 과거와는 차별적인 의미로서 '고립주의'의 개념이 대두

되었다. 유럽으로부터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국가이기주의'의 차원에서 발생했다.

하지만 그동안 미국을 지배해온 개념은 고립주의와 반대되는 '개입주의'였다. 역사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은 미국을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으로 성장시켰고 제2차 세계대전은 세계 최고의 군사대국으로 성장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미국 자본주의의 특성상 미국은 자유주의무역의 확산이 필요했다. 이에 미국이 국제 경찰의 역할로서 세계 문제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그러나 개입주의가 발생시킨 월남전의 실패와 미국 경제의 패권의 하락, 냉전의 종식 등이 일어나면서 이전의 고립주의를 변형한 신고립주의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신고립주의를 지지하는 논리는 자기역제적 논리와 자국중심적 논리가 있다. 전자는 미국이 계속해서 국제문제에 관여하는 것은 법의 한계를 비롯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다. 후자는 미국이 국제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했던 제2차 세계대전 전후의 상황과 현재는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 더 이상 미국이 많은 비용을 투자해 국제 경찰의 역할을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반미감정을 자극한다는 논리를 펼친다.

앞으로 신고립주의는

학자들은 현 정세의 흐름에서 신고립주의는 적어도 트럼프가 집권하는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트럼프의 공약은 미국 외교정책의 'Moneyball America'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Moneyball America'란 국제문제에 미국이 선별적으로 개입하면서, 이익을 우선하는 미국의 외교정책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미국으로 향하는 수출시장의 문이 좁아질 것을 우려한다.

반면 이와 상반되는 견해를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박 교수는 "트럼프가 '미국 제일주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남중국해 문제와 중동 및 시리아 문제 등에 대해 신고립주의적 경향을 내비치기엔 무리가 있다. 미국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수정을 시도하겠지만, 전 세계에 뻗어있는 국가적 이익을 철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즉, 미국이 세계의 패권국가로서 미치고 있는 영향력이 커, 각종 국제문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신고립주의를 지속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준근 박사는 자유경제원 공개강의를 통해 "트럼프가 대선에서 내세운 공약들은 실현 불가능한 허황된 공약임에 불과하다"며 수출시장의 축소에 대한 우려를 일축시켰다. 당선 직후 트럼프가 자신의 공약을 수정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러한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이렇듯 신고립주의는 기존의 고립주의와 달리 '돈'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미국의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다른 국가의 힘이 커질수록 미국이 군사외교를 경제외교로 이용하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이다. 미국이 국제경찰의 역할로서 세계안보에 힘써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에 만연한 신고립주의는 앞으로의 미국을 더욱 대변하는 이념이 될 것이다. 곧이어 범람하게 될 신고립주의에 대비하여 각자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문자수 기자 answltn15@hansung.ac.kr

오늘의 강연 **브렉시트는 왜 발생했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

브렉시트, 세계화의 종말을 고하는 신호탄



▲ TED강연 중인 영국 사회학자 알렉산더 베츠

(사진출처: TED)

지난 6월 23일 영국의 찬반 국민투표에서 51.9%로 '영국의 EU탈퇴(Brexit)'가 결정되었다. 나머지 48.1%의 영국 국민들과 더불어 전 세계는 큰 충격에 빠졌다. 그리고 브렉시트의 파장은 개표일 당일에만 전 세계 주가에서 2천억조 원 이상을 증발시켜버릴 정도였다. 그러나 몇 개월이 지난 지금,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했다는 의견이 오가고 있다.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브렉시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 정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최근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탈퇴와 불법이민자 추방 등 취임 이후 계획을 발표했다. 헝가리 민족주의자로 평가받는 빅토르 오르반 총리도 난민정착법을 금지하는 개헌안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정치인 장 마리 르펜이 프렉시트(FREXIT)를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

에는 2차 세계대전 전후에 대두되었던 민족주의, 보호무역주의가 이면에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 다수이다.

그렇다면 이런 흐름들로 인해 '세계화'와 '공조'라는 범국제적 실험이 끝이 나는 것일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브렉시트 결정을 바라보며 큰 충격을 느껴던 영국의 사회과학자 알렉산더 베츠는 TED강연에서 새로운 출발점을 제시한다. 점차 커져가고 있는 민족주의와 배타주의를 넘어 좀 더 포용적인 세계화를 향한 길이다. 현재 국제사회의 정세에 관심 있다면 다음 영상을 참고해보자.

김민식 기자 meanchic@naver.com

본 영상은 우측 QR코드 연결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실생활과 긴밀한 통계학



거짓을 간파하는 통계학
 저자: 가미나가 마사히로
 출판사: 윤출판
 출판일: 2013.11.15.
 책소개: 『거짓을 간파하는 통계학』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통계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례들을 찾아 소개한다. 흔히 '통계학'은 수학이기에 딱딱하고 지루할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저자는 통계학을 대화체로써 서술하여 보다 재미있고 쉽게 설명하려 했다.

통계학 덕분에 우리는 현대의 방대한 자료를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수치화된 자료를 아무런 의심 없이 믿는 것, 눈속임과 같은 자료를 배포해 그것에 대한 생각을 왜곡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통계 자료의 객관성을 떨어뜨린다. 이러한 결과들 때문에 자료의 올바른 해석이 중요해졌다.

이 책은 통계 자체에 대한 내용과 왜곡된 자료를 똑바로 보는 방법 위주로 서술되었다. 저자는 딸이 태어났을 때, '통계 데이터를 근거로 냉정하게 사회 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다음 세대에 공헌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책의 내용이 사회문제, 그 중에서도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례들을 제시한다.

저자는 부녀자간의 대화를 배경으로 삼아 좀 더 친밀한 느낌이 들게 했다. 말하고자 하는 개념의 정의에 대한 설명을 가장 손쉽게 시작할 수 있었던 방식임에 틀림없다. 또한 수많은 그래프를 사용해 시각적 이해를 높였고, 개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했다.

본문 중 일부는 실생활과 관련이 깊은 사례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해라는 것도 통계학 전공자나 그 분야에 깊은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나 납득이 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개념이 쓰인다' 정도의 설명은 통계를 전혀 모르는 이들에게 호기심 또는 얄은 즐거움 정도만 일으킬 뿐이다. 물론 대화 형식으로 서술하는 것은 이해가 쉬울뿐더러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적합하다. 그렇지만 대화 형식은 학술적인 개념을 전부 설명하기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이 책에 나온 부가적인 설명은 어느 학술 서적과 다르지 않다. 특히 수학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용어 자체도 어렵고, 그래프를 이해하기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표지에 적혀있는 '통계 콤플렉스를 날려주는 유쾌한 강의!'는 납득할 수 없다.

그렇기에 통계학에 대해 아무런 사전 지식도 없고, 수학과 관련된 것에 지극히 하는 사람에게는 추천해주고 싶지 않은 책이다. 그렇지만 통계학을 쉽게 설명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줬다는 점, 통계 사고력을 키워 줌과 거짓을 밝힐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통계학 전공자나 이제 막 배우려는 입문자들에게 추천한다.

박원경 기자 parkwk94@gmail.com

정치와 통계학, 여론조사도 틀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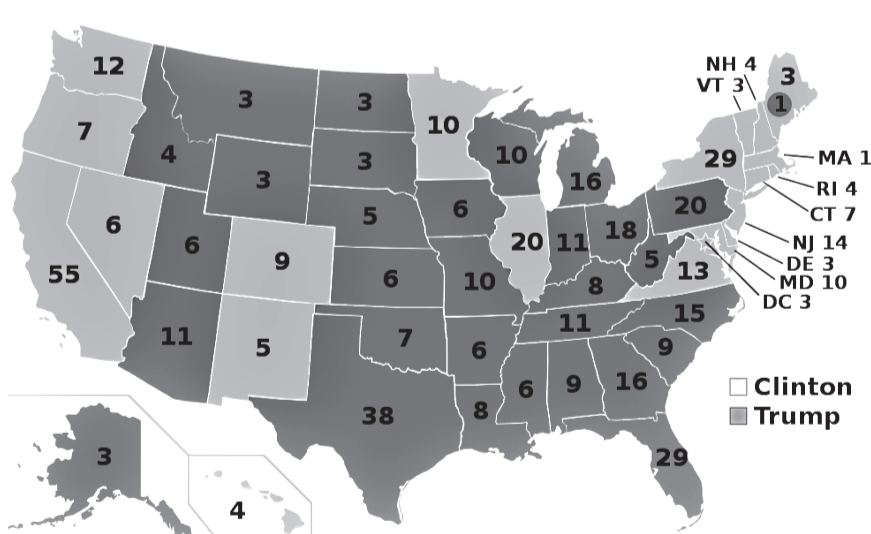
지난 미국 대선은 수많은 언론들이 승자로 지목했던 힐러리가 낙선하면서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선거 직전까지 미국의 뉴욕타임스, 허핑턴포스트, 워싱턴포스트 그리고 NBC 등의 주요 언론들은 여론조사를 통해 힐러리가 당선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미국의 45대 대통령은 힐러리가 아닌 트럼프였다.

정치적인 이유에서 지지율을 조사해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언론이나 여론조사업체는 여론조사로 얻은 결과를 수치를 통해 보여준다. 사람들은 그 수치를 통해 누가 당선될지 혹은 지지율이 어떻게 되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론조사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여론조사는 통계학을 이용한 표본추출을 사용한다. 표본추출은 관찰자가 조사하려는 집단 전체인 모집단으로부터, 모집단의 특성을 대표하는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다. 표본을 추출하는 이유는 모집단을 다 조사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모집단이 작으면 물론 다 조사할 수 있지만, 여론처럼 모집단이 큰 경우는 보통 표본추출을 사용한다.

표본을 추출해서 조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대표적으로 질문지를 우편으로 보내 답신을 받는 우송법, 직접 만나는 면접법, 전화 조사 등이 있다. 현대에는 인터넷과 모바일 같은 정보 통신 기술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로인해 시간과 비용을 더 줄일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확도 또한 높아졌다.

통계를 이용한 여론조사에는 좋은 점도



▲ 2016년 미국 대선 결과를 나타내는 지도이다

있지만 문제점도 역시 가지고 있다. 우선 표본을 추출할 때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을 추출하지 못한다면 잘못된 통계를 낼 수 있다. 가령 실제로는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지지율 조사에 응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처럼 모집단의 표본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여론조사 피조사자들의 응답이 항상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미국 대선 때 당선 예측이 실제 결과와 달랐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선거 전 트럼프는 "멕시코 이민자들은 강간범이다",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을 통해 수십억 달러를 벌어가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해 줘야 하는가" 등의 막말로 논란의 대상이 됐다. 그런 트럼프의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실제 트럼프 지지

자들은 여론조사 응답에서는 지지사를 숨겼다.

이번 미국 대선에 대해 김태중(무역학과) 교수는 "기존의 표본조사에서 제대로 표본추출을 못했을 가능성은 아주 희박한 것 같다"며 "자신의 의견을 숨겼던 사람들과 미국의 승자독식체제가 이번 대선 결과를 만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미국 대선을 통해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성이 재고되었다. 하지만 통계를 이용한 여론조사는 사회구성원이 사회적 문제나 정책쟁점 등에 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의견을 계속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도가 높다. 다만 여론조사는 예측일 뿐 결과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한신 기자 faith7631@naver.com

한성대신문 창간 40주년 기념

대학언론에게

정진석 대학언론협동조합 이사장

언론은 “죽지 않는 저널리즘”이다

혹시 '알리'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알리'는 '알 권리'의 줄임말로, 최근 대학가에서 속속 세워지고 있는 '독립언론'이다. '독립언론'이란 학보사처럼 대학본부에서 지원을 받지 않고, 대학본부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대학언론을 말한다.

신문사는 창간 40주년을 맞아, 이런 독립언론들을 경영·교육하는 대학언론협동조합의 정진석 이사장을 만나보았다.

Q.독립언론을 선택한 이유는?

학보사 기사를 3년 해본 결과, 학보사가 답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단 예산을 대학본부에서 지급하니 대학본부에서 자유로울래야 자유로울 수가 없다. 무엇보다도 주간교수는 스승과 제자라는 관계를 이용해 학생인 기자들을 압박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문제점이 존재한다.

대학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고 싶다면 학보사 역시 독립언론이 되는 걸 추천한다. 미국에서는 월남전 시기에 반전운동을 하던 많은 대학언론사들이 대학본부의 압박에 독립한 역사도 있다. 보스턴대학교가 그 예이다.

Q.학보사가 가진 한계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지나치게 진지하다는 것이다. 어차피 같은 학생이 만들고, 학생들이 읽는 신문인데 조금 더 학생들의 언어, 학생들의 이야기로 접근해도 괜찮다. 내용이 가벼워도 좋다. 최근 '반(反)지성'이 트렌드라고도 하지 않는가.

Q.그렇다면 학보사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예전에 한 학보사에 독자 비판 형식의 글을 기고했는데, 처음 1~2달만 기고하니 새로 원고를 쓸 필요 없이 헤드라인만 바꾸면 되더라.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은 대학언론에 대한 여러 세미나와 같은 논의에서도 '독자들과 전화통화도 QnA를 해준다'는 걸 모범사례로 발표하는 것도 봤다. 그러면 단순히 다산콜센터랑 다를 것이 없지 않은가. 내가 봐온 바로는 학보사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변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Q.대학언론이 학생들의 신문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라면 대학구성원 모두의 신문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대학구성원 모두의 신문이라는 소위 학생,

교수, 교직원의 삼주체론은 언론의 역할을 방해하려는 수작이다. 생각해보면 대학 구성원 중에 학생이 더 많겠는가 교수와 교직원인 더 많겠는가. 교수랑 교직원 다 합쳐도 대학구성원의 10%도 안 될 것이다. 이 상황에서 대학구성원 모두를 두루두루 챙기면 누구의 의견이 과잉반영될지는 뻔하지 않은가?

Q.최근 온라인 매체가 강화되는 추세에서 독립언론들은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나

지금은 오프라인 매체에서 온라인 매체로 넘어가는 과도기라고 할 수 있다. 알리 내에서도 온라인 비중을 서서히 늘려가고 있는 중이다. 특히 이화여자대학교의 '이대알리'와 같은 경우에는 최근 최경희 총장과 관련된 사건들 덕분에 온라인 매체에서 큰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 어느 언론사이던지 이렇게 온라인 매체의 저변을 넓힐 수 있는 시기가 있다고 생각한다.

Q.최근 학보사 기자수 부족, 독자들의 외면 등으로 인해 '대학언론의 위기'라는 말이 많다.

확실히 '대학언론의 위기'라는 말이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언론의 위기와 언론사의 위기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대학언론의 위기'는 '대학언론사'의 위기가 아니라 '대학언론'의 위기는 아니다. 언론은 지금껏 한 번도 위기를 맞은 적이 없다. 저널리즘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대 죽지 않는다.

Q.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대학언론의 역할은?

공동체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기사를 써야한다고 생각한다. 대학언론은 기성언론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요즘 언론기자들 보고 '기레기'라고 하지만 그들은 어쨌든 프로가 아닌가. 대학언론이 기성언론의 '대안언론'의 역할을 수행했던 70~80년대는 사실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갔다고 볼 수 있다.

대학언론은 캠퍼스 공동체가 모두 향유할 수 있는 콘텐츠를 다뤄야한다. 그건 대학본부의 문제점이 될 수 있고, 단순히 캠퍼스의 어느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걸 본 학생이 다른 학생들과 그 주제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우리 조합이 실행 중인 '알리 프로젝트'도 이에 따라 알리 환권이 100이라면 알거리 4, 놀거리 6으로 구성하고 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잘 녹여내야 하는 것은 맞다.

이효석 중대신문 편집장

우리는 ‘연합’이다

중앙대학교의 학보사인 '중대신문'은 현재 서울권 대학언론연합회(이하 서언회)의 회장을 맡고 있다. 중대신문은 1947년에 창간한 대한민국 최초의 학보로서, 대학언론의 효시를 쏘아 올렸다는 평가를 듣는 학보이다. 신문사는 이른 아침부터 기다린 끝에 중대신문의 편집장을 맡고 있는 이효석 편집장을 만날 수 있었다.

Q.한성대신문이 창간 40주년을 맞았다. 축하 부탁 드린다.

한성대신문이 서언회 활동을 열심히 해주시고 있다. 많은 학보사들처럼 힘든 와중에도 나와주셔서 회장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 저희 중대신문도 내년에 창간 70년을 맞는데, 학보사의 역사가 가진 힘이 분명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한성대신문도 40년의 역사가 가진 힘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길 바란다.

Q.대학언론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무래도 예전처럼 상황이 다르다보니 힘들 수밖에 없다. 소위 대학언론이 기성언론의 대안언론으로 가능했던 적이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기성신문과 차별화를 시도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기성언론을 답습하지 말고 같은 주제로도 대학생의 시각을 담아내는 것이 현재 대학언론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Q.학보사의 위기상황에서 대학언론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우선 학보사가 개별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유지하되, 연합이 필요하다. 예전에는 학보사 기자연합들이 존재했으나 현재는 와해되고 말았다. 그 와중에 현재까지도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서언회'이다. 서언회는 중대신문에서 창설한 단계 때문에 개인적으로 더욱 애착이 간다. 학보사들은 이런 연합을 통하여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정보를 교류하며, 대학본부와의 갈등상황에서 연대활동을 통해 공동의 대응을 할 수 있다.

Q.스스로 편집장으로서의 자신을 표현한다면?

'내 직을 건다' 일 것 같다. 편집장의 자리는 책임을 지는 자리이다. 신문을 발행할 때마다 내 직함을 건다는 생각으로 매호 매호를 전력투구하고 있다.

Q.한성대학교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시국이 시국인 만큼 많이 힘드시다. 하지만 이화여대가 이 사회의 변화를 선도했듯이 대학생들도 희망을 가지고 힘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성대신문 많이 애독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명훈 연세춘추 편집국장

우리는 ‘변화의 DNA’다

연세대학교의 학보사인 '연세춘추'는 서울권 대학언론연합회의 부회장을 맡고 있다. 연세춘추는 신촌 캠퍼스와 원주 캠퍼스, 송도 캠퍼스를 모두 아우르는 학내의 언론이며, 따로 매거진 'THE Y'를 격주로 발간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에 있는 연세춘추에서 최명훈 편집국장을 만나볼 수 있었다.

Q.최근 종이신문이 차차 설자리를 잃고 있다

학보사 입장에서는 양난(兩難)에 처해있는 입장이다. '대학언론의 위기'와 '종이신문의 위기'를 둘 다 겪고 있지 않은가. 기성언론도 이런 부분에서 이미 온라인 쪽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경향이 계속된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학보사는 정말 종이처럼 얇아 온라인쪽으로도 발행하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을 생각하자면 곧장 온라인으로만 플랫폼을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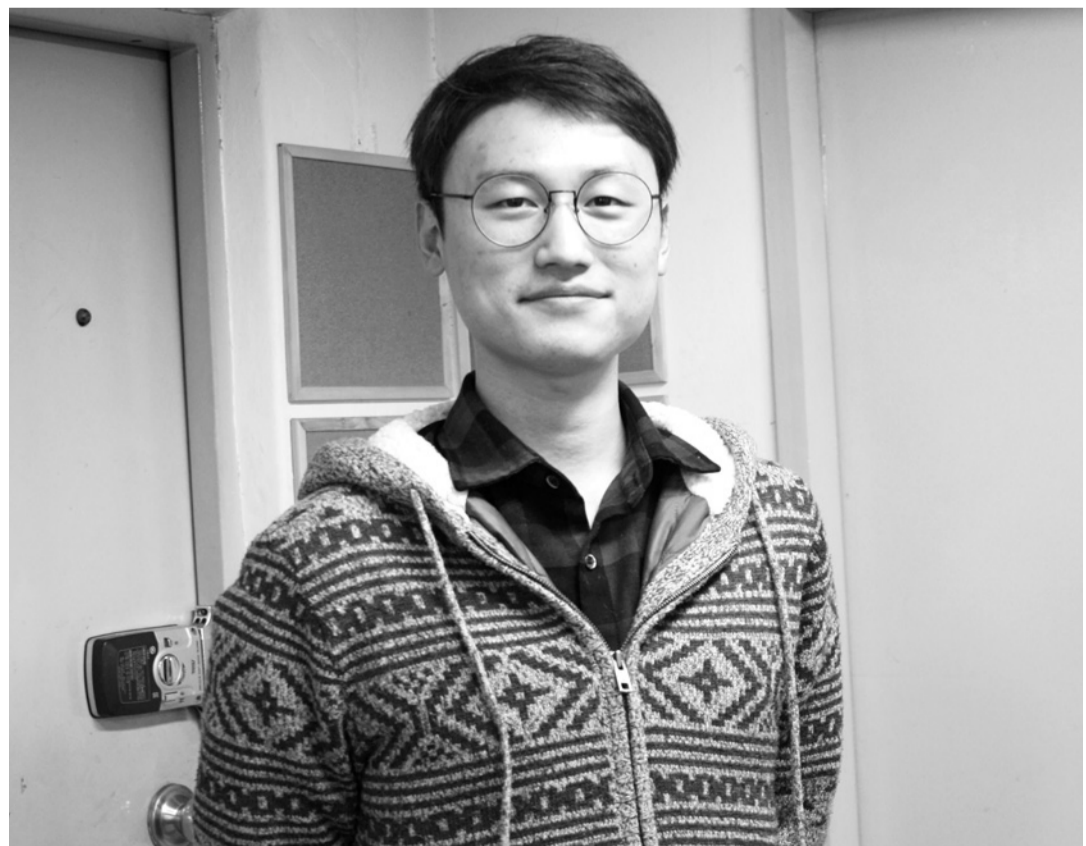
연세춘추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채널과 콘텐츠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우선 기존 오프라인 종이신문이라는 채널에서 페이스북, 홈페이지와 같은 온라인 채널에 힘을 쏟기 시작했으며, 콘텐츠적인 면에서는 기존 학보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매거진 형식의 'THE Y'를 격주로 발행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젊은 감각을 신문에 담아내고, 또 연세로 포괄하는 지역의 일을 다룸으로써 '지역지'로 발돋움하는 것이 목표다.

Q.본인의 학보사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변화의 DNA'다. 이대로라면 망한다는 위기의식 탓인지 단순히 다른 대학신문을 따라가기 보다는, 직접 도전하여 다른 학보사들을 선도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은 기자들이 가지고 있다.

Q.연세춘추의 'THE Y'에 대해 말해달라

시작은 2013년에 발행된 'GIF'로 시작된 온라인 매거진이다. 당시 신촌의 감성주점 '다모토리'에 대한 콘텐츠를 제작했는데, 정작 좋아하는 일도 없었지만 공유가 엄청나게 일어나면서 최종적으로 25만 명한테까지 도달했다. 이때부터 독자들의 수요를 어느 정도 파악했고, 변화하는 대중들의 입맛에 대응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발행하는 THE Y를 창간했다.



대학언론의 길을 묻다

이주형 기자 ljh@hansung.ac.kr
박원경 기자 parkwk94@gmail.com

이승엽 대학신문 편집국장

우리는 '시대정신'이다

서울대학교의 학보사인 '대학신문'은 서울권 언론연합회의 부회장을 맡고 있다. 대학신문은 잡들지 않는 시대정신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 학보사이기도 하다. 신문사가 만난 이승엽 편집국장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상당히 피곤한 모습으로 차기 편집국장에 대한 인수 인계를 끝냈다고 말했다.

Q. 대학언론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학언론은 대학 본연의 상황을 전달하고, 대학의 건전한 학풍과 문화 창달에 기여하며 소통창구이자 언론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Q. 왜 학보사 기자가 되기로 했는가

글쓰기를 좋아해서 글을 많이 쓰기 위해서 기자가 되었다. 그래서 지원할 때도 취재부가 아니라 학술부로 지원해서 기사를 썼다. 하지만 학보사 생활을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교내의 여러 일들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처음에는 기자의 사명감 같은 건 없었다고 생각한다.

Q. 종이신문이 차차 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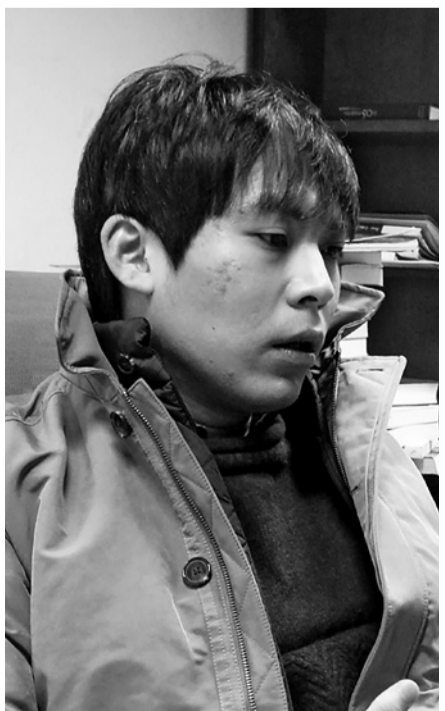
그건 사실이지만 종이신문은 포기할 수 없다. 학생들이 SNS를 많이 이용하고, SNS의 접근성이 좋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교수와 교직원들은 종이신문의 지면을 통해 소식을 접하기 때문에 지면은 유지되어야 한다. 물론 대학신문도 SNS를 통해 카드뉴스 등 다양한 시도를 해봤지만 큰 효과를 볼 수 없었다. 그래서 속보의 용도로 이용했는데, 이번 시흥 캠퍼스 문제를 속보로 보도하니 좋은 반응이 돌아왔다. 문제는 플랫폼이 아니라 콘텐츠라고 생각한다. 좋은 콘텐츠를 발굴해서 쓰면 좋은 반응이 돌아온다.

Q. 본인의 학보사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잡들지 않는 시대정신.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Q. 편집국장으로서 이제 내려오는데 소회를 말해달라

돌이켜 보는데 재미있었다. 이번에 교내에 많은 사건, 특히 시흥캠퍼스 건으로 많은 일들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학우들의 대학언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힘들지만 성취감은 높다고 생각한다. 이제 다 내려놓을 수 있어서 후련하다.



심재호 건대신문 편집국장

우리는 '아마추어'다

건국대학교의 학보사인 건대신문은 내부 사정으로 인해 현재 5명의 인원으로 운영되는 학보사다. 건대신문은 한성대신문과 그 규모면에서 비슷하고, 발행면수도 8면으로 동일하다. 신문사는 건국대학교 학생회관에서 건대신문의 심재호 편집국장을 만날 수 있었다.

Q. 한성대신문이 창간 40주년을 맞았다. 축하 부탁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대학언론의 일이 상당히 힘든데도 40년 동안 유지한 것이 같은 대학언론인으로서 자랑스럽다. 앞으로 10년 뒤까지도 계속 번창하기를 응원하겠다.

Q. 최근의 상황에서 대학언론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말해달라

온라인 매체가 발달할수록 당연히 학보는 쇠퇴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학보사들이 외면 받게 된 이유 중 하나는 학보사의 '아마추어리즘'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기자들이 아무래도 아마추어들이라 보니, 직업으로서가 아니라 학생으로서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70~80년대의 '대안언론'으로서의 역할은 앞으로도 계속 축소하게 될 것이다. 현재 학보사들은 역할에 있어서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다. 대안언론으로 갈 것인지, 기관지로 갈 것인지. 현재는 그 과도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Q. 학보가 학생들의 신문이라고 생각하는가, 학교 구성원의 신문이라 생각하는가

학보는 학생기자들이 만드는 신문이다. 당연히 학생들이 중심에 놓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은 학보는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아마추어리즘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학보사의 운영을 학생들에게 맡기는 유지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단순히 정보전달의 목적이라면 꼭 학생기자가 아니라도 괜찮다.

Q. 기자들이 적어서 불편한 점은 없는가

일단 장기취재가 많이 힘들다. 격주 발행이기 때문에 장기취재에 투입할만한 취재인력이 없다. 무엇보다도 신문사가 주관하는 행사를 진행할 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SNS 같은 경우는 다수의 담당자가 관리를 해야 하는데, 현재 인원으로는 유지하는 것이 한계다.



김지원 성신학보 편집국장

우리는 '무한동력'이다

성신여자대학교(이하 성신여대)는 우리 대학과 거리상으로도 가깝고, 학생 규모도 비슷한 대학교다. 성신여대의 학보사인 '성신학보'의 김지원 편집국장을 만나기 위해 정문에 들어서자, 게시판 가득 총학생회 선거와 관련된 대자보들이 붙어있었다. 성신여대나 우리대학이나 그 성질은 달라도 격동의 시기를 맞고 있는 것은 명확해 보였다. 김지원 편집국장은 성신학보 사무실로 기자를 안내했다.

Q. 대학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성신여대의 대학언론이라면 학내 문제를 0순위로 다루어한다. 또한 대학생들의 생각과 사상을 전달하고 이를 통해 변화를 이끄는 것 역시 대학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Q. 본인의 학보사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한동력'이다. 이진 뮤지컬의 이름인데, 뮤지컬의 내용처럼 우리 학보사도 기자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다. 만약 기자들이 없었다면 학보사는 돌아가지 않았을 것이다.

Q. 한성대학교는 트랙제도, 성신여대는 총학생회 문제로 변화를 맞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한쪽의 말만 들어주고 기사로 실을 수는 없다. 성신학보는 기본적으로 양쪽의 말을 모두 들어주는 양자취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양쪽의 말을 모두 들어보고, 객관적으로 시비가 명확하다면, 그때는 기사의 논조를 통해 의견을 표현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Q. 한성대학교나 성신여대나 다른 서울권 대학에 비해 학생 수가 적은 편이다

학생 수가 적다보니 아무래도 학보사의 일에도 많은 차이가 생기는 것 같다. 아무래도 학생 수가 많을수록 학생들의 생각도 많아지기 마련이고, 또 규모가 크면 교내 곳곳에서 더 많은 사건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규모가 큰 대학신문들은 이를 통해서 기사를 쓸 수 있지만, 아무래도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성신학보는 그럴 일이 적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고 기사를 만들어야 한다.



최수진 한성대신문 27대 편집국장

신문사, 신문, 기자들은 항상 여기에 있다

2016년 초 한성대신문은 창간 이래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단 한명의 현역기자도 남아있지 않아 개강호를 낼 수 없는 위기에 처했던 것이다. 신문사의 편집 간사로서 이러한 시기를 함께 극복해낸 최수진 전 편집국장을 만나 대학언론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Q. 한성대신문이 창간 40주년을 맞았다. 축하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학보사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힘들 때가 많았다. 그래도 40주년까지 왔다는 것이 기특하고, 앞으로 40년 더 갈 수 있도록 고민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본다.

Q. 예전 학교다닐 때와 현재를 비교하면, 학생들의 생활면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그때보다 지금의 학생은 더 어른 같다. 지금은 돈도 벌어야 하고, 또 졸업 후에 대한 고민도 더 빨리 한다. 우리 때는 3·4학년 때 시작했다고 하면, 지금은 입학과 동시에 하는 것 같다. 마치 고등학교의 연장선인 것 같은 느낌도 받는다. 지금의 학생들은 예전에 비해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이 앞만 보길 강요받는다. 사회적 분위기가 신문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때에 비해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 같다고 느껴진다. 그것은 곧 기자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기회비용이 커졌다는 의미이다.

Q.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데, 신문사도 추세에 맞춰야 하지 않나.

신문사는 과거와 현재가 비슷하다. 가장 진보적이어서 할 곳인데도 불구하고, 조직 문화·구조가 매우 보수적이다. 물론 부분적으로 변하고는 있다. 하지만 변화를 위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는 느낌이 강하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대학언론도 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감해야 한다. 그렇지만 과감한 변화가 무엇인지 찾기는 쉽지 않다.

않다. 이것이 같은 문제를 맴도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Q. 대학언론은 학생들의 신문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대학 구성원 모두의 신문이라고 생각하는지.

대학 구성원 모두의 신문이다. 그러나 정보력이나 의견을 표출하는 것, 그 의견이 갖는 힘 등을 고려했을 때 학생들은 머릿수는 많지만 약자이다. 때문에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조건 학생 편은 아니다. 그들은 정보를 얻을 방법이 없고, 그들에게 정보가 가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학생들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대학사회가 더 복잡해지고, 위기에 처할수록 신문사의 역할이 더 커졌다고도 볼 수 있다.

Q. 대학언론의 기자로서 가장 힘들었던 적은 언제였나.

학보사 기자들은 스스로를 '기자'라고 생각하는데, 학교는 기자들을 '학생기자' 취급했다. 교수를 취재할 때도 학생으로만 바라보고, 교직원들은 공문을 가져오라며 회피하기도 했다. 그럴 때 벽에 부딪히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Q. 한성대학교 신문의 독자들에게 한 마디 해주신다면.

신문사, 신문, 기자들은 항상 여기에 있다. 독자가 더 많이 읽을수록 언론의 힘은 더 커진다. 한성대신문을 많이 읽고, 잘 활용했으면 한다. 신문으로 정보도 얻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해준다면 신문도, 기자도 더 정교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렇게 된다면 독자들 또한 더 양질의 정보를 얻게 된다. 이런 것이 선순환 구조가 아닌가. 학교 구성원들은 신문을 만들고, 취재하는 과정을 단순히 '학생들이 하는 활동'이 아니라 '언론'으로 인정해 줘야 한다. 언론은 독자와 기자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다.





최근 많은 기업들이 사내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구글의 '명상 사랑'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구글의 엔지니어 차드 멩 탄(Chade-Meng Tan) 씨는 2007년부터 '내면검색(Search Inside Yourself)'이라는 명상 프로그램을 만들어 직원들에게 소개했다. 비단 구글뿐만 아니라, 인텔, 페이스북, 나이키 등 세계적인 기업들도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삼성, SK, 엔씨소프트, 네이버, LG 등 유수의 기업들이 명상전문가를 초청해 강연을 열었다. 명상이 기업들 사이에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이다.

명상, 나와 친해지는 고요의 시간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구글 캠퍼스'에는 매달 둘째 주 화요일에 명상하는 창업자들의 모임인 'G-pause'가 열린다. 이 모임은 '나의 성공'만이 아니라 '우리의 성장'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기 위한 모임으로 작년 7월부터 시작했다. 이 모임에서 명상을 지도하고 있는 유정은(한국내면검색연구소) 소장에게 기업들이 명상을 도입하고 있는 이유를 물어보았다. 그녀는 개인의 생산성과 창의성은 조직 내의 정서적 안정성에 기인한다고 말한다. 특히 치열한 경쟁 속에 살고 있는 직장인들이 명상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넓히고, 나아가 조직 전체에 긍정적인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유 소장은 대학생들도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질문하는 힘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내면검색은 나한테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요즘 20대들은 SNS를 통해 자신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SNS를 통해 드러난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인지는 모를 일입니다. 잠시라도 휴대폰을 내려놓고, 고요히 앉아서 나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지 시기를 바랍니다." 10대의 나와 20대의 내가 다르듯이 '나'라는 존재는 끊임없이 변한다. 따라서 나를 찾는 긴 과정 속에서 점차 더 스스로를 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유 소장이 말하는 명상은 내가 아닌 다른 완벽한 누군가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친해지는 시간임을 강조한다.

나에게 명상이 필요할까?

일상생활 속에서 명상을 한다는 것은 결

코 쉬운 일은 아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것처럼 시간과 에너지가 들기 때문이다. 세상에 즐겁고 재미난 일들이 가득인데 명상과 같은 따분한 일에 꼭 시간을 써야 하는 것일까? 운동이 하는 것이 스스로의 선택인 것처럼, 명상도 자신에 삶에 대해서 불만족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굳이 할 필요는 없다. 명상이라는 낯선 세계의 문을 두드리게 되는 이유는 인간에게 내재된 본원적인 불만족을 체험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불만족을 키우는 원인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가 경험하는 대상에 우리는 '좋다, 나쁘다, 그저 그렇다'라는 이음표를 붙인다. 그리고 나에게 좋은 것들은 움켜쥐고 놓치지 않으려고 애쓴다. 반대로 나에게 나쁜 것들로부터 끝없이 달아나려고 한다. 그 사이 그저 그런 대상은 지루한 것으로 치부하고

경을 느끼고 신비스러운 종교적 체험을 추구한다는 생각이 그 대표적인 오해다. 명상은 '생각 버리기'나 '통제하기'가 아니다. 우리는 원하는 모든 것을 얻고, 그것들을 통제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바라본다. 그렇게 나 자신도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통제는 필연적으로 '나 vs 나'라는 대결 구도를 만든다. 그 투쟁의 승리자도 '나'이고, 패배자도 '나'이다.

'명상의 집' 자에서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명상지도자 전현자 씨는 "우리가 과연 수감자들 보다 자유로운지 생각해볼 일"이라고 묻는다. 그녀가 지도하는 명상은 끊임없이 알아차리는 방법이다.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려면 지금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아야 한다. 바리볼 수 있다면 변화는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억지로 통제하거나 자신과 싸울 필요가 없어진다. 명상은 개인

로 명상이다.

나 혼자 잘사는 것이 아닌 '자명함의 실천'

명상의 궁극적 목적은 혼자만의 행복을 추구하거나, 도를 깨우친 산 속 도인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명상을 깊게 하다보면, 내면의 도덕성을 느끼게 된다. 교과서 속 도덕이 아닌, 스스로 내면에서 관찰했기에 참임을 알 수 있는 도덕성이다. '홍익학당'의 윤홍식 대표는 그것을 '자명함' 또는 '양심'이라고 부른다. 도덕성의 이름이야 무엇이 되었든 그 양심의 실천을 성실하게 해나가는 것이 진정한 명상수행이라고 윤 대표는 말한다.

명상에서 얻은 안목의 변화로 세상을 바꾸기도 한다. 명상가였던 스티브 잡스가 IT 업계의 영웅이자, 세상을 바꾼 혁신가가 된 것처럼 말이다. 물론 명상이 모두를 성공하게 하거나, 부자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한다. 단지 하나의 열쇠를 쥐어줄 뿐이다.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창의력이라는 열쇠이다. 물론 이것들은 다지면 상의 글일 뿐이다. 명상이 해볼만한지 알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뿐이다. 올바른 방법을 배워 직접 해보는 것. 독자들 스스로가 직접 체험해보길 권한다.

김민식 기자 meanchic@naver.com



“ 여기 침묵의 그늘에서 그대를 맑히라.
이 부드러운 바람결에 그대 향기를 실으라.
그대 아름다운 강물로 흐르라.
오 그대 안 저 불멸의 달을 보라. ”

무시해버린다. 이렇게 수없이 반복되는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며, '나는 왜 이렇게 감정 기복이 심한 것일까?'라는 질망 또는 죄의식이 생긴다. 그것은 나의 느낌, 생각, 감정을 '통제'하려는 순간에 발생한다.

명상센터 '명상의 집' 자에서 명상수행을 하고 있는 방재현(서울 강동구, 28) 씨의 경우에는 학부 졸업 직전에 느꼈던 불안감이 그를 명상으로 이끌었다. '홍익학당'의 수련모임에 참가하고 있는 이재중(국립암센터, 34) 씨는 어떻게 하면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궁금했다고 말한다. 이 두 사람 모두 삶에서 마주한 의문으로부터 명상의 세계로 초대장을 받은 것이다.

명상의 방법론: 끊임없는 '알아차림'

명상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 위에는 잘못된 이미지가 덧씌워져 있다. 명상을 요가와 같은 심신이완법으로 생각하거나, 황홀

이 느끼는 감정·생각·느낌·오감들을 인정하고 그것에 좌우되지 않는 방법을 가르친다. 필대로 되라는 식의 현실도피는 아니다. 평범한 삶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명상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 갈수록 사고가 더 유연해지고, 자비로워진다. 나 자신 안에 있는 인간적 약점들과 욕망들을 이해할 수 있게, 나와 동등한 주체인 타인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나를 포함해 변화해가는 모든 것들 속에서 세상을 새롭게 인식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바



연애에서 '나'는 차선이 아닌, 최선이다

인터넷에는 종종 '애인이 잘못을 했지만, 내가 화를 내면 헤어지게 될까봐 무섭다'라는 내용의 글이 보인다. 친구들에게 듣는 '애인한테 서운하지만, 그냥 참으려 한다. '지금의 애인과 헤어지는 걸 상상해본 적조차 없다' 등의 이야기도 특별한 고민거리가 되지 못한다. 제 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이런 결정들은 왜 이루어지는 것일까? 정답은 간단하다. 내 자신에게 '나'가 1순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동건 작가의 「유미의 세포들」은 위의 사례와 같은 상황에서 내면의 모습을 보여준다.

'유미의 세포들'이라는 웹툰은 말 그대로 주인공인 유미의 '세포들'이 나온다. 이 세포들은 각각 고유의 가치관과 생각을 대표하는 존재이다. 배고플 때 음식을 먹게 하는 '출출세포', 이성적인 판단을 돕는 '이성세포' 등이 그 예이다. 그 중에서 가장 강한 '사랑 세포'는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 유



▲ 유미의 식욕을 나타내는 '출출 세포'. 유미의 식욕만큼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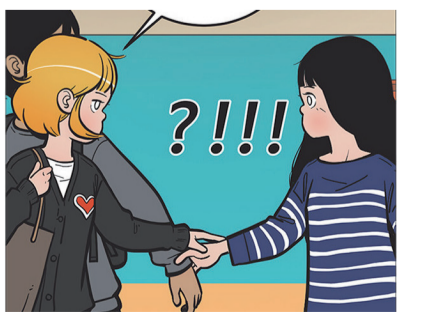
미가 최선을 다하도록 만든다. 또한 유미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길 때마다 자신의 최우선 순위를 그 사람으로 설정한다. 이에 따라 사랑 세포는 그 사람이 잘못을 하더라도, 유미가 화를 내지 않도록 다른 세포들을 말린다. 그러나 어느 날, 유미의 남자친구 웅이 여자친구와의 관계로 유미를 속상하게 하고, 유미 앞에서 그 친구의

편을 든다. 그러자 엄청난 무력감이 유미를 뒤덮으며, 사랑세포는 힘을 잃는다. 웅이의 행동이 연인으로서 잘못됐으며, 이에 대해 화를 내고 싶지만, 자신이 지켜야 이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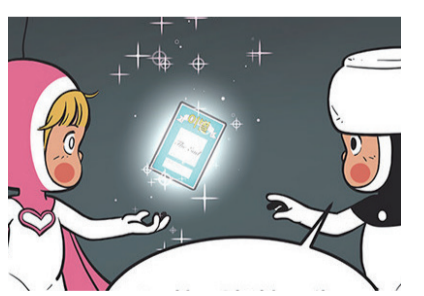
이 때, '자신감 세포'와 '본심 세포'가 융합한 '신의 한수' 세포가 사랑 세포에게 '이별'이란 카드를 내민다. 그리고 이별 카드를 지니고 있는 것만으로도, 유미는 언제든지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사랑 세포가 이 카드를 받아들여, 유미는 인생에 있어 처음으로 애인보다 스스로를 우선순위로 두게 된다. 그리고 모든 문제가 쉽게 풀려버린다. 더 이상 웅이의 이성친구문제가 유미를 괴롭히지 않으며, 연인이라는 이유로 자신이 희생해야 한다는 착각에서 자유로워진다. 그렇게 유미는 스스로를 위해 진정 필요한 선택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연인관계에서 문제를 겪는 사람이 최후

에 내리게 되는 선택은 하나이다. 그 관계를 지속할 것인지 말건지를 정하는 것이다. 좋으면 보고, 싫으면 안보고 이를 정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연인관계에 있어 상대방을 위한 무조건적인 헌신이 필요하다고 착각하며, 본인보다 상대방을 우선시한다. 이처럼 스스로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닌 연인을 최우선시하는 이유는 관



▲ 웅이의 손목을 잡은 새이와 그 손을 떼어내는 유미



▲ 사랑 세포에게 '이별'이란 카드를 건네는 신의 한수 세포

계의 끝이 두렵기 때문이다. 또한 연인관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아래에 둔 사람은 자신의 본심을 온전히 드러내지 않아야 그 관계가 지속될 것이라 믿으므로, 연인을 최우선시 하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일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봄으로써 명료한 답을 얻을 수 있다. 지금 나의 삶이 '누구를 위한' 삶일까?

유은강 기자 dbdmsrkd73@naver.com
출처 : 네이버웹툰